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보리심을 씨앗으로 삼고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으며 방편을 실천하라. (대일경)

법회 안내

거암정사 포교원 (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오후8시30분
건강법회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학포교원 (02)308-952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문학법회 매월 넷째주 일 오후2시
주부문학교실 셋째주 금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실 매주 일 오전10시

홍은사 (02)922-1990
초하루법회 매월1일~3일(음)
지장재일 매월 15일(음)
가족법회 매월 1 · 3주 토 오후7시

보리사 (02)562-9939
초하루법회 매월1~3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일본신도법회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 · 중고생법회 일 오전10시

여의도 포교원 (02)784-9136
일본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 · 일 오전10시30분

부산 관음사 (051)205-0069
초하루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매월 1 · 3 일 오후2시
금강경 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송광사 포교당(0694)857-232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중 · 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청년학생회 매월 첫째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장의예식봉사단 발족

24시간 상담전화 개설…불교예식 통일 추진

조직 전국확대…납골 · 탑묘제 정착 이끌어

임종에서 장지까지의 모든 장례절차를 자원봉사체제로 여법하게 치뤄나갈 조계종 불교자원봉사센터 '장의예식봉사단'(단장 시현스님 · 조계종 문사부장)이 지난 18일 창단됐다.

조계종 불교자원봉사센터가 현대장의연구소(소장 이재학)와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장의예식봉사단은 장의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 불교식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장의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핏받침하게 된다.

장의예식봉사단은 서울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의전스님, 진행요원, 교육이수 봉사자등으로 구성된 20명의 봉사단으로 꾸려지고, 점차적으로 전국 14개 시도지역에 봉사센터를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장의예식봉사단은 우선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장의예식 자원봉사의 내용 및 절차교육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의예식봉사단은 앞으로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불교장례절차를 수정, 보완한 통일불교장의예식집도 발간하게 된다.

현재 장의예식봉사단은 24시간 장의상담전화 080-972-4444를 개설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02-872-1444) 운영에 착수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불교자원봉사센터 장의예식봉사단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장례예식장 사업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납골 · 탑묘제도의 사회적 정착을 꾀할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위덕대 초대총장 손제석씨 선임



진각종립 위덕대학 초대총장에 손제석씨(전문교부장관 · 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지난 21일 제238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총장을 선임하고 학혜정사, 김능수교수, 임동준씨를 새 이사로 선출했다. 손제석씨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회당학원 이사장(현재)등을 역임했다.



한마음으로 부르는 자비의 노래 제각기 다른 모습과 옷을 입었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우리사회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불교 · 천주교 ·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소회는 지난 2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재난사고 희생영령 및 5 · 18 희생영령 합동천혼제'를 봉행했다. 이날 천혼제에서 참석자들은 모든 영령들이 생사의 고해를 넘어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를 한마음으로 노래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전통사찰 경내지 종토세 면제

내년부터 시행…토지세 80%감면 효과 예상

전통사찰 소유 경내지에 대한 종토세가 전면 비과세된다.

내무부는 조계종과의 수차례 회동끝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에 제7호를 신설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조항을 삽입시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임대등 수익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시행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도부터 시행된다.

조계종 기획실장 한용스님은 "이 시행령이 실시되면 사찰토지관련 세금중 80%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내다보고 "토지초과이득세도 비과세되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어

해마다 쓰는 유서

해가 바뀔때 마다 유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연말이면 유서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대학교 손봉호교수(57 · 사회교육과)를 비롯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해마다 '전재산의 70%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쓴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정기모임도 갖지 않는 이운동은 1984년에 시작됐다. 현재 회원은 2백80여명이라고 한다.

"우리는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므로 돈과 재물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합니다." 손교수가 '유산남기지 않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취지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 공기 네 공기가 따로 없이 동식물까지 함께 공기를 공유하듯 사실 이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식 내 재산 등 '내 것'이라는 착심을 내고, 그 집착의 소산인 소유의 재미를 만끽하려 든다. 그것이 고(苦)의 시작인줄도 모르고.

때문에 전재산의 70%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는 쉽지 않다. 아니 아주 어려운 일이다.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해마다 유서를 다시 쓰는 이유 역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행여 '아깝다'는 욕심이 잡초처럼 불쑥 자랄까 염려해서 연말이면 물심양면으로 손익계산서를 뽑으면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70%는 아니더라도 금년 한해동안 우리는 자기수익의 얼마를 이웃과 나누었나 한번쯤 돌아보자.

그리고 "남의 불행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 가득한 세상을 가꾸자"는 조계종 종정스님의 병자년 신년법어를 가슴에 새롭게 담자.

부처님 땅에서 성도절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생애를 고스란히 간직한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이시대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실천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입체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발자취따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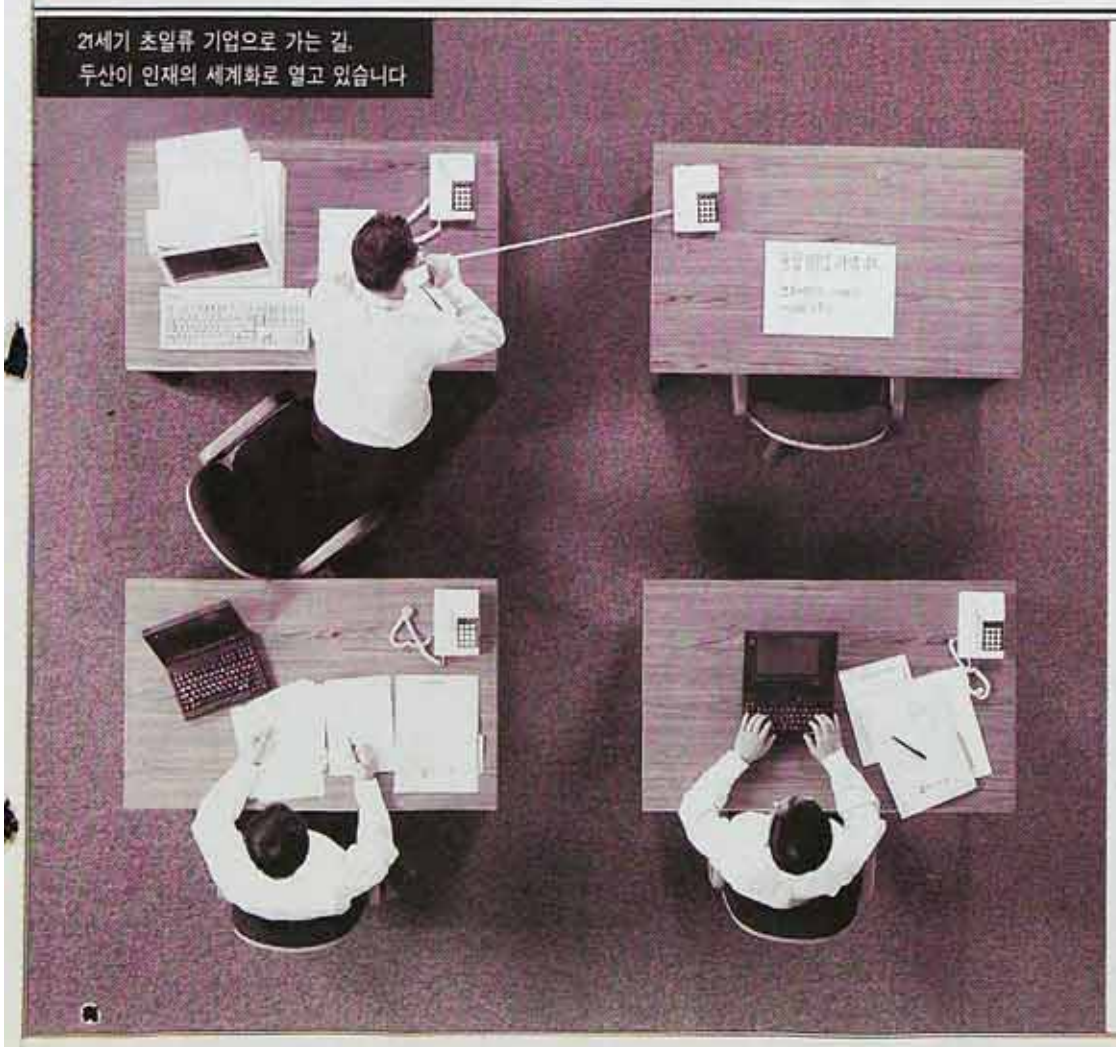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 찬 : 에초여행사 · 수미산여행사 (성지순례 전문업체)
성 지 : 인도 · 네팔 (녹야원,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라, 기원정사, 룸비니 등)
일 정 : 9박 10일
참 가 비 : 155만원(여권 인지대 45,000원 별도)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출발일정
- 1차 : 96. 1. 17
- 2차 : 96. 1. 24
- 3차 : 96. 1. 26
- 4차 : 96. 1. 31
- 5차 : 96. 2. 4

여행조건
- 1급호텔 기준 2인1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포함) 성지 지역 : 한식제공
-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 · 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 인도성지 전문 안내원 동행

※ 기타문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02)737-8881)

해 넘기는 교계현안 19면
'95 마감 기자방담 18면
법정스님 송년설법 10 · 11면
해맞이 법회로 새해맞자 13면



인재로 이어온 100년
일류로 나아갈 100년

"지금, 배낭여행중입니다"

두산의 사원 500명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인재 세계화의 새로운 길, 국내 최초의 사원 배낭여행으로 엽니다

세계화된 기업만이 21세기 초일류 기업-
두산은 인재의 세계화를 통해서 기업 세계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도록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사원 배낭여행은 인재 세계화의 한 과정입니다.
국내외 장기 어학연수, 전문기관 위탁교육,
해외지점의 현지인 운영체제,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세계화의 길은 과감한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100년, 도전100년
斗山

사 설

정신황폐가 낳은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위험 수위가 상상 이상이라 한다. 학교는 통제와 교화를 포기했고 이윽고 경찰력이 동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학교도 하나의 사회인 바에야 멸균의 합리적 교환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서도 권력과 지배는 일상적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순진하게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코드가 모종의 평등이거나 혹은 성적순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앞의 나이브한 낙관도 문제이지만 뒤의 성적순의 프레스티지 또한 폭력을 진작시키는 한 '불합리'라는 사실을 다들 간과하고 있다.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잘난 체'를 못보아 준다고 항변한다. 나아가 자기보다 나은 자, 저보다 잘 생기고 옷 잘입는 아이들 또한 '응징'의 대상으로 찍는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적나라한 '깡'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를 통해 부당한(?) 권력의 교환에 불복하고 저항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범죄의식이 없다. 인터뷰에도 당당히 응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이 대목을 주의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은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사회악이니 뿌리뿌터 잘라야 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를 또한 부당한 권력 교환의 희생자들이다. 그 시스템은 '우리' 어른들이 숙세(宿世)에 걸쳐 만든 것이다. 아이들은 그 업(業)의 과보로 부당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 윤회(輪廻)의 시스템이 정화되고 건강해지기까지 학교폭력의 위험은 엄존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현상을 은폐하거나 혹은 강제적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근본 치유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緣起法)의 소식임을 다들 벼락치듯 알아야 한다.

근본병인은 우리의 탐욕과 노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삼독(三毒)이라 않던가. 그 깊은 뜻을 이제 조금씩 짐작한다. 사회는 보다 나은 지위와 권력을 위한 충동(貪)으로 인한 끝없는 투쟁, 그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한(瞋)의 무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을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다(癡)는 데 있다. 근대에 들어 이 경향은 보다 적나라해지고 치열해졌다. 과학문명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달 그리고 이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도구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이념이 자리잡으면서 출세와 성적의 물신(物神)이 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꿈과 정서를 잃었고 타인에의 배려와 자율적 규율이라는 인문적 교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 세간(世間) 너머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는 인간의 영원의 꿈이 담겨있는 곳이다. 논리적 사유와 함께 신화적 사유, 과학적 사유와 더불어 종교적 사유를 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현대 불교는 청소년 포교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들었다. 거기서 복잡한 불교형이상학을 전파하려 노력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초적인 예불과 공양을 통한 일상적 두타의 훈련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힘과 인간 정신의 깊이에 대한 외경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적과 합리와 생산의 거울로 비추기에는 법계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마침 불교계는 내년을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교화와 포교에 주력한다. 그 성과에 자못 기대를 건다.

열린마당

불안할수록 참회정진…운명 스스로 개척

혜 관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부처님께서는 많은 경전에서 불자들에게 세속의 주술을 행하지 말라고 말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길흉따위란 관계가 없다. 그러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요, 미혹의 어둠속으로 던져져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했다.

입시철이면 자식의 합격을 점치는 부모, 자신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점괘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불자들 사이에 많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법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도 말이다.

모든 세상만사에는 우연과 필연이 있고, 그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혼란한 사회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기도, 참회정진하여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하나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동서고금의 성현들은 공연한 일을 해온 꼴이 되는 것이 아닐까.

불자들은 자기속의 참 주인인 불성(佛性)이 점쟁이의 점괘보다 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운명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긍정적 사고력 부족할때 마음을 구속

한 정 섭 〈한국불교고교화원 이사장〉

점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자연의 원리와 초인간적 존재와의 접촉에 의하여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를 예측하는 철학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나 운명론적인 사상에 빠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구속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

"당신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그날 그때가 지나갈 때 까지는 설사 액막이를 하였다하더라도 불안 초조한 생활을 면할 수 없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이러한 예언과 비결, 도참사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음양5행의 기운이 우주 인생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운명이 더욱 극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극히 깨닫고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인생은 누구나 두번 죽지 않는다. 살았을 때 이 몸으로 착한 일 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마뱀이 하루에 일곱 번 변하는 이치를 보고 주역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주역을 보고 깨닫고 아는 자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점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올바르고 의미있게 만들어 가도록 자신을 다듬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 것이다.

사주·관상통한 신도교화등 구태벗어야

윤 재 승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느 서점이든 가보면 거의가 다 불교서적 코너에 역술서를 꽂아 놓고 있다. 올해도 역술신간이 1백여종이나 나왔다 한다. 이렇게 역술서가 불교서적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오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역사이래 불교는 상당부분 역술과 호흡을 같이 해 왔다. 도선의 비보사상도 그 원뜻이야 어떻든 이런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했고, 그 뒤로도 많은 스님들이 사주나 관상등 역술을 신도 교화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그것이 교화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면 딱히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불법 홍포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하는 오해의 소지 같은 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결국 우리 불교쪽에서부터 역술을 끌여들였고 편의상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불교와 역술을 뒤범벅시켜서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혼동케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불교인들에게 있다고 필자는 본다.

지금도 주지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종단의 공인된 절을 갖고 있는 보살들 중에서 역술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각성해야 할 일이다.

시대가 융융할수록 역술은 호황을 맞이한다. 어쩌면 시대를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젠 불교와 역술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전당에서 역술 따위가 횡행해서야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겠는가.

예언·점술

사회가 어수선하거나 국가 대소사를 앞둔 때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최근 심모라는 무당의 국가대사 예언이 적중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 무당의 책이 베스트 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새해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고 입시·승진·선거철이면 유난히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요즈음 전국적으로 점복이 성행하고 예언서가 베스트 셀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역사적으로 세상이 어지럽거나 왕조가 망할 무렵에는 반드시 점복과 주술이 성행하고 이단종교가 위세를 떨치곤 하였다.

비자금과 5·18 수사로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세도와 부를 누리던 과거의 실세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부도로 쓰러진다. 북한은 경제가 회복불능상태인데다 수해로 인해 기아상태의 주민이 수십만에 이른다 하고 휴전선의 병력증강 배치로 전쟁위기설까지 보도되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최 훈 동
전문가 진단

점을 치는 심리는 무엇인가? 인류가 가장 먼저 개발한 도구 중의 하나가 점치는 도구였을 것이다. 고대로부터 무당이나 제사장이 통치자를 겸해왔고 제정이 분리된 이후에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점복이나 예언을 참고한 기록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언제 점을 치고자 하는가. 불안할 때이다. 왜 불안한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현재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불안하다. 그래서 알고자 하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는다. 점을 보면 일거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과 이성의 힘만으로 알 수 없고 권력이나 재산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곳이 바로 종교가 시작하는 곳이며 또한 점복이 근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오인하여 겁을 먹고 되돌아선 사람이 낮에 가서 새끼줄인 줄 알고는 아무 두려움 없이 길을 갔다는 경전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불안 중에서 가장 큰 불안은 존재의 상실, 파괴를 뜻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일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자식을 잃고 실성하다시피 된 여인이 붓다께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붓다는 3대째 죽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몇알 구해오면 그대의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하셨다. 결국 그 여인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아이를 기적으로 소생시켰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더 진정한 해결책인가. 붓다는 신통력이나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다. 다만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을 뿐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붓다의 처방은 자립적이고 이성적이며 근원적 처방이고 예수의 처방은 타력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일시적 처방이다.

불안이나 불행을 해결하고자 점을 치고 굿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한탕주의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점복이나 예언 그리고 이단종교들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버섯과 같다. 사회가 성숙하고 밝은 민주사회가 아직 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진정한 민주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자리라는 인식과 온 국민이 다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점복은 빛을 잃을 것이다. 〈백산신경정신과 원장〉

그늘진 사회서 자라는 독버섯

길흉화복 자기 의지따라 오고 가는 것

맹 란 자 〈수필가〉

만물에는 성주괴공과 길흉성쇠와 진퇴존망의 법칙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吉(進·存)함만 좋아하고 凶(退·亡)함은 싫어한다. 어찌 열흘 붉은 꽃과 기울지 않는 달이 있으랴.

"수시로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역(易)이라 하니 한번은 양지가 되고, 한번은 음지가 되는 게 주역의 이치이다. 이에 성현들은 궁즉재야(窮則災也)나 성(盛)한 때를 조심하라 이르며 불우한 때에는 희망과 용기를 잃치 말라고 격려한다. 그믐달이 만월을 향해 가듯 그 비색(否塞)함이 어찌 오래 갈까보냐(否終則傾)하고. 그러니 희비란 나막신과 비신을 파는 두 아들의 어머니처럼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 아닌가.

어느날 소강절선생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입니까?"

"남이 나를 일그러지게 휴(虧)하는 것이 복이 되고, 내가 남을 일그러지게 하면 화가 된다"고 답했다. 다산이나 퇴계는 역(易)에 능하면서도 점을 치지 않았다.

역이 가르치는 그 가야할 바를 따르면서 이(理)와 도를 숭상할뿐, 상수(象數)의 말단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자는 '역은 복서'라고 하였다.

'점'이란 '|'연속되는 시간과 '—'시간선상에서 취해진 어느 한순간에 'ㅁ'이 판단해내는 것을 말한다. 문복자(問卜者)와 작괘자(作卦者)와 점단(占斷)의 그 시기가 일치되어 하나의 상징적 부호인 '괘(卦)'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암시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데 그거야말로 해석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칼융은 '자성(自省)적인 사람들만 위해 역(易)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주역은 깊은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자신이 누구인가를 참구해 들어가는 선의 세계에까지 일도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해할 목적이나 부정한 일에 관해 점치면 일러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만평

박구원



언제쯤 녹을지…

국민여러분과 2천만 불자에게 드리는 말씀

—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경하하며 —

지난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요 쾌거입니다. 특히 이 나라가 과거의 정치적·경제적인 잘못된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자긍심이 손상 당하고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시국적 여러움을 겪고 있는 즈음에 접한 낭보이기에 척박한 사막에서 감로수를 만난 것 같은 뜻깊은 민족적 경사인 것입니다.

이번 세계 문화유산 등록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나라가 수많은 국가적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꽃피워 내고 보존하여 왔던 문화민족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유산에는 조상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으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불교적 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대표적 문화재들이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불교인만의 자부와 긍지가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기쁨이기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래로 내려오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저변에서 늘 함께 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 가운데서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들은 단순한 예술적 조각이거나 건축물이 아닌 조상들의 민족적 비원과 신앙의 갸륵한 정성이 녹아 내려 있는 민족 의식의 결정체입니다. 그 비원은 다름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온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바램은 불교의 사상과 신앙으로 정립되어 이 땅의 문화와 도덕의 기초가 되었으며, 불교 문화는 마침내 민족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문화 유산도 그 예술적 가치나 과학적 우수성은 물론 민족의 생활 문화와 하나된 불교의 신앙성과 사상성을 담고 있기에 더욱 존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의 비원이 담겨 있는 문화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자부와 긍지를 안겨 주고 나아가 새로운 힘을 길러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하여 감시 살펴보면,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 땅에 이상사회인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호국적 발상에서 창건하였으며, 그 호국적 발상은 불교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가람 배치와 조형의 특출한 예술적 성취는 말할 것도 없으며, 석굴암의 본존불과 보살상은 속세의 감정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한없이 위대하고 자비로운 자태로서 세계적인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국가적 위기를 불교적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염원의 결정체인 팔만대장경은 8만 개가 넘는 경판과 6천만 자가 넘는 천문학적인 글자 수에도 불구하고 오자나 낙자 없이 정교하고도 예술적 수준이 뛰어난 서각으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민족 출판 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판을 보존하고 있는 장경각의 구조와 배치는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로도 넘지 못하는 고도의 건축 기법으로서 습기와 온도, 통풍 등을 스스로 조절하여 대장경을 오늘날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이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 사회의 발달과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가치관이 전도되고 심성이 황폐화되어 가는 오늘날, 조상들의 비원과 삶이 녹아 있는 전통문화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이렇듯이 옛 선현들의 정성과 공덕이 후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 대상 하나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문화유산을 통해 오늘날 황폐해진 도덕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바른 삶을 지향토록 하려는 조상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새삼 절감합니다.

근래 들어 우리의 문화재 및 자연 유산은 자연 풍화에 의한 자연적 손상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한 인위적 유실과 손상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홍보는 물론 관리 및 보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문화재가 어느 나라에 속하든지간에 세계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문화재 및 자연의 유산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 인류를 위한 세계의 유산의 일부로써 보존하여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산의 보호는 국제사회 전체에 주어진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우리가 더욱 명심해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격한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 현상도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철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시대를 맞아 인간의 이기적 탐욕은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소외, 도덕적 타락과 범죄의 만연으로 이어져 세계적 차원의 무한 경쟁 시대와 함께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각종 병리 현상을 타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보편화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두두물물에 녹아 있는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비원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선현들의 경건한 삶을 느끼고 나와 자연, 세계가 하나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는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고 인도주의의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 참다운 생명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문명의 보편적 가치 형태는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온 국민의 성원 속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판 및 판고, 그리고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것을 다시 한 번 경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 유산을 잘 보존, 선양하여 문화민족으로서 21세기 인류의 문명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39년(1995년) 1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합장



지혜·자비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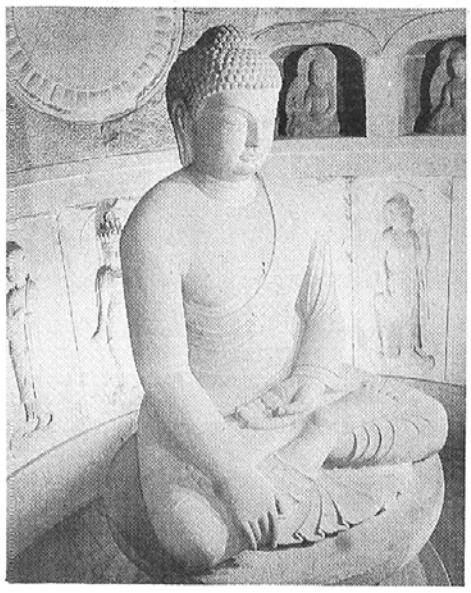
◀작은나눔 큰기쁨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시작된 올해는 환경운동의 정착과 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이룬 해로 평가된다. 각종 사회 종교단체들의 캠페인을 통해 크게 실효를 거두었다. 또 대형사고 현장 봉사활동은 함께사는 사회 만들기의 토양을 다졌다. 특히 교계는 르완다·미얀마·캄보디아 등의 난민돕기도 활발해 세계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펼쳤다.

'사랑의 방송' 개국▶



1백만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의 소리 방송'이 12월20일 개국됐다. '희망의 소리 밝은 내일'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루 10시간 방송된다. 자비가 숨쉬는 이 방송의 주요내용은 복지 취업 등 장애인 정보프로그램과 재활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사회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등 다양하게 마련돼 장애인의 귓전을 울린다.



▲세계의 보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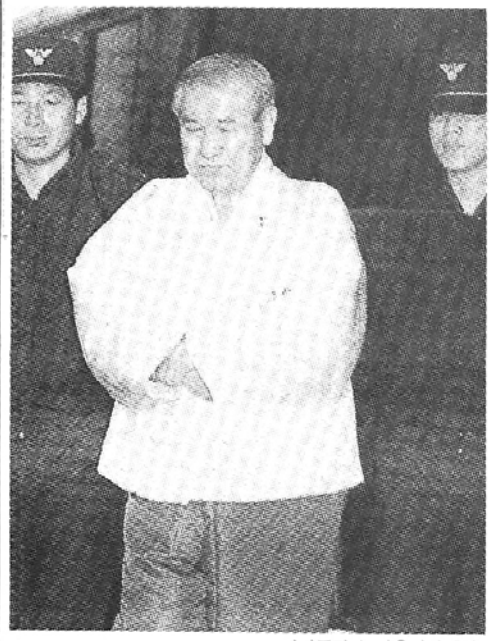
예술로 승화된 불교신앙의 결정체인 석굴암(국보 제24호)과 해인사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와 판고(국보 제152호) 배달민족의 기상과 정신이 깃든 종묘(사적 제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12월6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네스코 산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위원회 제119차 총회에서 공식등재된 세건의 보물은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적 보배임을 확인시켰다.

'95 사진으로 본 '피안과 苦海'

탐욕의 진흙서도 연꽃은…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끔찍한 대형사고, 온 국민을 경악시킨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 군부 구테타의 진상 밝히기…. 줄이어 터져 나온 사건 사고로 올 한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아 했다. 그런 가운데 민족의 자긍심 높이기와 세계화, 금융실명제등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혜롭고 자비심 넘쳤던 일들과 탐진치의 업장이 빚은 피할 수 없는 업보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탐·진·치 현장



▲두 대통령 구속

전대통령 노태우씨가 5천억이상의 대형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수감(10월16일)되고 마침내 법정에까지 섰다(1차 12월18일). 또 '5공비리'로 백담사 유배생활을 했던 전두환 전대통령도 12·12와 5·18과 관련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12월3일). 이 두 사건은 해를 넘기는 가운데 한번 뿌려진 죄의 씨앗은 반드시 벌이란 이름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엄중히 가르치고 있다.



▲'삼풍' 붕괴 · '대구 폭발'

삼풍백화점이 6월29일 무너졌다. 이에 앞서 4월28일 대구시내 한복판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무너진 백화점 속에서 5백1명이 사망하고 9백3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자도 30명이나 된다. 대구가스폭발로 1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날벼락과도 같은 사고로 인륜과 사회적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들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한 업장들이 얼마나 무섭게 버티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검은 바다

7월23일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돼 남해바다가 온통 죽음의 그늘로 뒤덮혔다. 어장이 기름범벅이 되고 매일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야 했다. 다시 청정해역이 되기위해서는 20년~1백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방심과 탐욕이 마침내 바다 중생의 생명을 무더기로 앗아간 이 사건 이후에도 남해에서는 기름유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송년칼럼

오직 뭉쳐야 사는 것을

—— 광복 50돌 세모에 생각한다



이 영 희
〈작가〉

광복 쉰 돌의 해를 보내며 새삼 '분열의 구도(構圖)'를 생각케 된다.

우리는 어쩌면 이다지도 갈갈이 갈라서는 민족인가.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형이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이같은 생태를 빚어내게 하는 것인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가 대립하고, 지역별로 또 맞서고, 정치투쟁으로 사생결단을 내고, 명분 싸움으로 이전투구가 된다.

그러나 곰곰히 돌이켜보면 이러한 분열의 구도는 지난 50년 사이에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시대에 이어진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 아니, 가야까지 보탠 4대세력의 대결구도는 기원전서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7세기 후반까지 되풀이 되어왔다.

낙동강 유역에서 뛰어난 제철 및 철기 제조 기술로 번성한 가야제국이 어째서 허슨한 연맹체로만 있었는지 그 또한 수수께끼다. 가야는 왜 통일국가를 형성치 않았는가. 그것도 분열생리 탓이었는가.

분열은 멀리 고조선 건국 이전서부터 시작된다. 단군 탄생에 얽힌 신화가 그것을 암시한다.

일연의 〈삼국유사〉권제1 기이편(紀異篇) 고조선 대목은 〈고기〉(古記·〈단군고기〉를 말함)를 인용, 다음과 같은 고사를 전해주고 있다.

옛날 환웅이 3천명을 거느리고 신시(神市)로 내려왔는데, 거기엔 범 한마리와 곰 한마리가 같은 굴 안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졸랐다. 환웅은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리라' 했다. 곰은 이 말을 잘 지켜 삼칠일(21일)만에 여자로 변신할 수 있었으나, 범은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는 데 실패했다. 여자가 된 곰 즉 웅녀는 환웅과 혼인, 아들 단군왕검을 낳는다. 그가 조선국의 시조다.

한편 중국의 「위서(魏書)」에 의하면, 단군은 요왕(堯王)과 같은 시기에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다 한다.

뼈아픈 분열의 교훈

〈동국통감(東國通鑑)〉은 이 단군 즉위의 해를 기원전 2천3백33년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단기 4천3백28년이 되는 셈이다.

이들 옛 기록을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조선은 북방 어딘가에서 온 단군의 조상 일족과, 곰으로 상징되는 토착 부족간의 통합으로 이룩된 나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범으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부족은 그후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와 중국 옛 문헌엔 〈예맥(濊貊)〉이란 낱말이 자주 등장한다. 때 로는 '예'와 '맥'이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맥은 '고대중국 동북방에 살고 있었으며 한(韓)민족의 근간이 되었다(〈새국사사전〉)'고 알려져 있다.

예맥은 하나인가, 아니면 따로 구별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학계의 오랜 쟁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예맥은 원래 하나였다. '같은 굴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곰으로 상징되는 맥(貊)이 단군일족과 통합하면서, 범으로 상징되는 예(濊)는 따로 떨어져나갔다. 하나의 연맹체였을 예맥은 이때부터 예와 맥으로 나뉘어지기에 이른다.

다시 통합된 옛조상

8세기초에 간행된 일본 역사책 〈일본서기〉와 〈고사기(古事記)〉는 그 첫머리 부분에 한 편의 고대가요를 싣고 있다. '야구무다토(夜句茂多兎)…'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일본학자들은 그새 로맨틱한 사랑의 가요로 해독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말로 읽으면, '야와 구무가 다투어 구무가 이겼다'는 노래로 떠오른다. '야'는 '예'를 지칭하는 일본 고대어, '구무'(구마·구모·고마·고모라고도 불렀음)는 '맥'을 가리킨 일본 옛말이다.

조선국 건국 때 따로 떨어져 나간 예는 요즘의 중국 북동부의 동방으로 이동하다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하, 일본으로 진출했다. 이 선주(先住) 세력인 예를, 뒤따라 간 맥이 공격하여 이겼다는 것이 노래의 내용이다.

노래의 작자는 맥계 제철집단의 리더로 여겨지고 있는 스사노오(素盞嗚). 이 인물은 야사카신사(八坂神社)라는 서낭당에 의해 크게 받들어져 있다.

'야사카'란, '예와 섞었다(통합했다)'는 뜻의 우리 옛말을 일본식으로 표기한 차자문(借字文). 비록 싸움을 했을망정 예맥은 일본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섬은 백성을 한 덩이로 뭉치게 하는 풍토인가.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일본인들의 단결심에는 놀라운 데가 있다. 그 옹골찬 응결력을 대할 때마다, 우리 땅에선 갈라서고 일본 땅에선 되합친 예맥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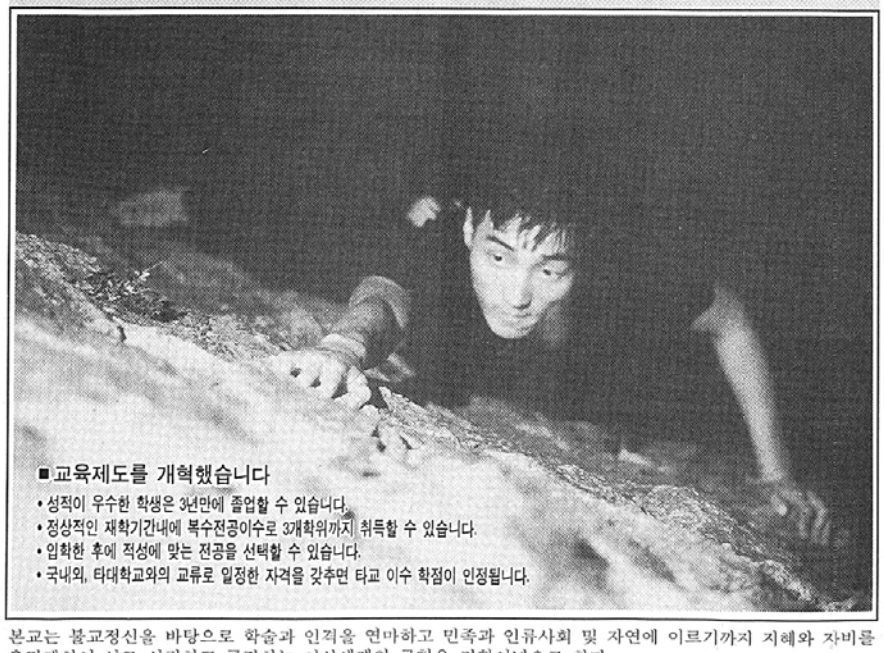
갈갈이 갈라져 맞서는 작금의 슬픈 세태를 보며, 광복 50돌이요 동시에 한·일 국교정상화 30돌인 이 해 세모(歲暮)에 하나의 독백을 곱씹게 된다.

—오직 뭉쳐야 사는 것을!

〈약 력〉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1954년).
△한국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11대 국회 의원,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등 역임.
△'또 하나의 만엽집을 읽는 모임' 회장.

1996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특차, 전기)

길을 찾는 젊은이가 이르는 그 곳—동국대학교!!
참교육, 열린 큰교육을 실천하는 동국대학교가
한국의 내일을 이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했습니다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재학기간내에 복수전공이수로 3개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입학한 후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타대학교와의 교류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타교 이수 학점이 인정됩니다.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서울 캠퍼스

대학	계열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특차	전기	계
불교대학	인문사회계열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인도철학전공 선학전공 선학전공(승려)	8	52 20	60 20
문과대학	인문사회계열	인문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 국민윤리학전공		90	90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	8	32	40
		영어영문학과		10	40	50
		영어영문학과(야)			50	50
		노어노문학과			30	30
		일어일문학과			30	30
		중어중문학과(야)			50	50
이과대학	자연계열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통계학전공		180	180
		전산통계학부	전산통계학전공(야)		100	100
		반도체과학과(야)			40	40
법과대학	인문사회계열	법학과		16	64	80
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계열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24	96	120
		경찰행정학과		8	32	40
		무역학과(야)			40	40
		신문방송학과(야)			50	50
경상대학	인문사회계열	경상학부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보관리학전공	57	228	285
		경상학부(야)	경제학전공(야) 무역학전공(야) 경영학전공(야) 회계학전공(야) 정보관리학전공(야) 광고학전공(야)		325	325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계열	생명자원과학부	식물자원학전공 식품생물학전공		90	90
	인문사회계열	생명자원경제학과			30	30
공과대학	자연계열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42	168	210
		토목도시공학부	토목공학전공 도시조경학전공	24	96	120
		공학계열	화학공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84	336	420
		공학계열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사범대학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과			40	40
		역사교육과			40	40
		교육학과			30	30
		지리교육과			40	40
	자연계열	수학교육과			30	30
		가정교육과			30	30
	예·체능계열	체육교육과			40	40
예술대학	예·체능계열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12	12
			한국화전공		13	13
			서양화전공		12	12
			조소전공		13	13
		연극·영상학부	연극전공 영화·TV연출 전공	이론연출	20	20
				연기	20	20
서울캠퍼스 계				281	2,609	2,890

●경주 캠퍼스

대학	계열구분	모집단위		모집인원 특차	전기	계
불교문화대학	인문사회계열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일반	40	40
			선학전공	승려	30	30
		불교학과			50	50
	예·체능계열	국악과	기악전공		31	31
			성악전공		8	8
			이론·작곡전공		5	5
			전통무용전공		10	10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	전산정보학부	통계정보학전공 전자계산학전공		90	90
		전산정보학부(야)	전자계산학전공(야)		40	40
		조경학과			50	50
		산업안전공학과			40	40
		수학교육과			40	40
		가정교육과			40	40
법정대학	인문사회계열	법학부	행정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100	100
		법학과			60	60
		법학과(야)			40	40
상경대학	인문사회계열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국제경제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정보산업학전공		350	350
		경상학부(야)	경영학전공(야) 정보산업학전공(야)		80	80
		관광경영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60	60
		관광경영학부(야)	관광경영학전공(야) 호텔경영학전공(야)		50	50
한의과대학	자연계열	한의예과		16	65	80
의과대학	자연계열	의예과		10	40	50
인문과학대학	인문사회계열	인문과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한문학전공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철학전공		390	390
		사회복지학과			40	40
	예·체능계열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12	12
			한국화전공		13	13
			서양화전공		12	12
			조소전공		13	13
		사회체육학과			40	40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	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 화학학전공 생화학전공		130	130
경주캠퍼스 계				26	1,968	1,994
총 계				307	4,577	4,884

■전형일정

●서울·경주 캠퍼스

특차
• 입시일자 '95. 12. 26
• 원서교부 기간 '95. 12. 19 ~ 12. 26 (09:00 ~ 17:00)
• 원서접수 기간 '95. 12. 25 ~ 12. 26 (09:00 ~ 17:00)

전기
• 입시일자 '96. 1. 18
• 원서교부 기간 '95. 12. 19 ~ 96. 1. 6 (09:00 ~ 17:00)
• 원서접수 기간 '96. 1. 3 ~ 1. 6 (09:00 ~ 17:00)

원서교부처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동화서적, 세종문고, 한가람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고려문고, 영등포문고, 원서문화센타, 부산동보서적, 대구 종로서적, 울산 동화서점, 제주서귀포 광장서점
마산 서울고시사서점, 인동 종로서적, 조흥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서울 캠퍼스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02) 260-3031, 260-3032~4
●경주 캠퍼스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0561) 770-2031, 770-2032~4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조계종 포교대상에 무진장스님



조계종 포교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성타)는 지난 20일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 : 무진장스님(2, 4대 조계종 포교원장·사진) △공로상 : 철오스님(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성일스님(신흥사 청소년수련원장) △원력상 : 김양수(광동여고 교장), 김정제(군법사), 김경숙(조계사 불교대학강사), 현익채(금정중학교 교법사), 황해진(청교련 부총재), 박성형스님(불국사 포교국장), 박근호(울산교도소 교도관).

대상을 수상한 무진장스님은 초대중앙포교사로 포교원장 재직시 포교사배출, 교양대학설립등 포교의 기틀을 다진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종교협 창립 30주년 기념식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는 지난 21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혜초(태고종 총무원장)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김재중(천도교 교령) 김몽은(KCRP회장)신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능가스님(초대회장) 강원룡목사(4대회장)등 7명이 종교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중앙승가대 송년의 밤·강연회

'95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송년의 밤 및 강연회가 지난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열렸다. 송년의 밤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종범스님이 '승가교육이 나아갈 방향' 수완스님이 '승가대학이 나아갈 방향 모색' 김응철교수가 '승가대학인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송산, 혜욱, 성문, 지운, 종선스님등 1백여 스님이 참석했다.



최정희 기자 근속20년 축하회

'95 불교언론인의 밤 및 최정희기자 20년 근속 축하회가 지난 18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휴(불교신문 사장) 법타(조계종 총무부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도원(천태종 총무부장) 혜공(태고종 재무부장) 법산(동국대 정각원장)과 김광삼(본사 사장) 송석구(동국대총장) 박경훈(법보신문 주필) 홍윤식(동국대 박물관장)등이 참석했다.



'동국인의 밤' 행사 열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황명수)는 지난 19일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4회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동문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현성스님(불교청소년교화련회장), 김동정변호사등에 감사패가, 탤런트 김혜수씨등 17명에게 축하패가 주어졌다.



'대불' 조계사서 송년법회

(사)대불(대불련 총동문회·이사장 명호근)은 지난 18일 조계사 불교회관 강당에서 95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문회장 명호근 쌍용투자증권회장, 오형근 동국대불교학과장, 전창렬변호사, 김윤권 대우자동차동수원판매대표, 윤재철 영원무역사업본부장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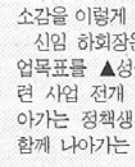


故 윤이상선생 49재 봉은사서 봉행

故 윤이상선생 49재가 지난 21일 강남 봉은사에서 봉행됐다. 봉행위원장인 무상스님(봉은사 주지)의 추모사와 법주 인묵스님의 49재의식등으로 진행된 법회에는 영산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스님들과 고인의 누이동생 윤동화씨,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임수경양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교차로

생활보호대상자에 금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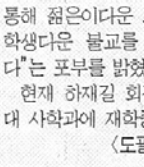


혜초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지난 20일 성북2동에 거주하는 정신대할머니 최갑순씨를 비롯 생활보호대상자 3명을 방문, 백미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전승련 7대회장에 선출

재안스님(불국사 강원 사교과)은 지난 15일 제6대 전승련 제4차 총대의원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창고절 24돌 기념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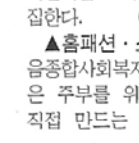
효강정사(총지종 봉리원장)는 지난 24일 풍리원 총지사에서 총지종 제24주년 창고절기념불사를 개최했다.

삼귀의·오계 수계식



자우스님(우이동 금강사 주지)은 새해 1월 7일 오전11시 금강사에서 삼귀의계와 오계수계식을 갖는다. 이날 1~19세까지의 불자는 삼귀의계를, 20세이상은 오계를 수지한다. 특히 스님은 서울경찰청 경승실장을 역임하고 있어 경찰가족과 운전기사 가족에게는 수계동참금을 받지 않는다. (02)993-3744

소년가장등 돕기 법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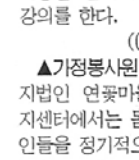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은 새해 1월 21일 오전10시30분 안양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선원 신도회 주최로 열리는 소년소녀가장 및 정신대할머니 돕기 법회와 불교음악 발표회에서 설법한다.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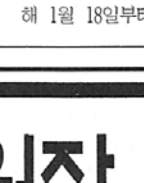
병오스님(독일 보문사 주지)은 지난 21일 '베를린 상 아카데미합창단' 일원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회에 참가했다.

벽제국군병원 위문공연



운월스님(동대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회 회장)은 오는 28일 동문회원, 한강군경연예인봉사단과 함께 벽제국군병원 위문공연을 떠난다.

'부패추방 시민연합' 지도위원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지도위원에 선임됐다.



'삼풍' 생존자의 희생영령 추모

지난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최명석, 박승현, 유지환양이 지난 15일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추경석·정종택·이각범씨 등 발탁



추경석장관 정종택장관 이각범수석 박세일수석

지난 20일 개각에서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에 추경석씨, 환경부장관에 정종택씨,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에 이각범 서울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복지수석에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불자로 알려지고 있다.

▲추경석 장관=60세, 부산, 성균관대 경제과, 국세청 감사관·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차·청장.

▲정종택 장관=60세, 충북청원, 서울 대법대, 충북지사, 농수산부장관, 정무1장관, 11~13대 의원.

▲이각범 정책수석=47세, 경남 밀양, 서울대 사회학과, 독일 뮐레펠트대 사회학박사, 서울대 교수, 조지워싱턴대 교환교수.

▲박세일 복지수석=47세, 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 교수, 경실련정책연구위원장.

"조직 강화로 내실 다질 터"

대불련 34년차 회장
하재길군



"31·32년차에서 설정한 대불련의 정치적 입지강화, 주체역량의 강화를 33년차 회기에서 준비작업을 해 왔다면 이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열심히 뛰어야 할 때입니다. 중앙지부의 위상 재정립과 함께 지부·지회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중앙과 서로 맞물려 어우러지게 적극 동참하는 실천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대불련 33년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하재길군는 당선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신임 하회장은 내년도 사업목표를 ▲성공하는 대불련 사업 전개 ▲희망을 찾아가는 정책생산 ▲지부와 함께 나아가는 본부 ▲내실있는 조직사업 전개 ▲현시기 대불련운동의 정형정착 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사업의 추진보다는 지부와의 조직적 연계를 위해 대불련 중앙지부의 조직강화 방법 모색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고 밝힌 하회장은 "조직강화를 통해 젊은이다운 그리고 대학생다운 불교를 지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하재길 회장은 아주대 사학과에 재학중이다.

〈도필선 기자〉



태고종 수보리 유치원 개원법회

태고종 대구 관음사부설 수보리 유치원(원장 혜공스님)이 지난 12일 총무원장 혜초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연건평 2백50평 3층규모로 개원한 수보리 유치원은 내년부터 4학급 1백60여명의 원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게시판

▲덕유복지관 교사모집=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에서 12월말까지 신심있고 성실한 어린이집 교사와 시설장을 모집한다. (032)325-2161

▲홈패션·소품만들기=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주부를 위한 생활소품을 직접 만드는 홈패션과 꽃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만들기 강의를 한다. (02)985-0161~4

▲가정봉사원 모집=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도와주는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02)203-3677

▲수화·점자강의=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새해 1월 18일부터 3개월간 수화·점자 교실을 개설한다. (02)720-4528

▲신년하례회=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공동으로 새해 1월 5일 오후2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갖는다. (051)867-0501

▲명찰순례=부산불교텔레비전(지사장 우관수)은 새해 1월 6일, 7일 양일간 선원사, 성곡사, 봉암사, 정암사 등으로 명찰순례를 떠날 회원을 모집한다. (051)645-5114

▲고전문화 교양강좌=전통문화연구회(회장 안병주)는 새해 1월 4일부터 명심보감(화·목 오후6시), 고문진보(월·수·금 오후6시), 통감절요(격주 토 오후6시)강의 등 동계 고전문화 교양강좌를 연다. (02)762-8401

대한 불교

총화종 제12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산하 대지가 설화의 동한을 맞이해 부처님의 불은이 충만 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오는 1996년 1월16일(음력 11월26일)은 본종 제12대 종정 이동광큰스님 종정추대 및 전남정 총무원장 취임대법회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본종은 이번 대법회를 통하여 종단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크게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多事多忙 하신줄 번연히 헤아리면서도 廉恥不顧하고 이에 招請하오니 敦厚하신 配慮下에 掃萬枉臨하시와 자리를 빛내 주시옵기 懇望하나이다.

일 시 : 1996. 1. 16. 오후 2시

장 소 : 쉐라톤 워커힐 본관

문의처 : 본종 총무원 ☎(02)742-8895~6

종정 추대위원

敎育院長 鄭慧晏　監察院長 張慧雲
護戒院長 朱仁鉉　布敎院長 金男日
文化院長 李基泰　宗會議長 金華潭

봉행위원장

總務院長 全南亭

봉행위원

總務部長 李萬悟　敎務部長 張一崔
財務部長 朴仁海　社會部長 朴時均
規正部長 林容圭　組織部長 李成實

京畿北部宗務院長 朱仁鉉
京畿東部宗務院長 奇福成
京畿南部宗務院長 張一崔
京畿西部宗務院長 張慧雲
忠南北部宗務院長 朴仁海
慶北部宗務院長 權泰鳳
釜山慶南部宗務院長 金男日
濟州宗務院長 李亨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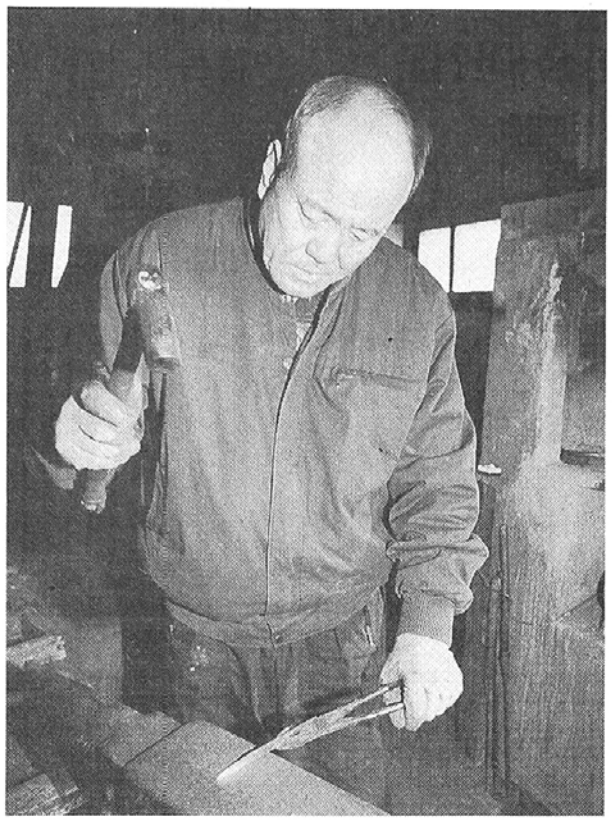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회

奉行委員長
總務院長 全南亭 合掌

"담금질은 무쇠에 생명넣는 작업"

산문밖의 선禪

대장장이 **이은규** 씨



"천번 두드리고 다듬으면 날 서고 쓸모있어"
정성이 기술…8살부터 풀무질 대장일 62년

쇠망치를 내려치는 소리는 둔탁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어야 신명이 나는 사람이 있다.

강원도 임계에 사는 이은규씨. 그는 이 땅의 몇 안되는 두두리(대장장이) 가운데 손꼽히는 인물이다. 우선 그는 쇠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는 쇠박사다. 어떤 쇳덩이라도 망치로 한번 두들겨보면 단단한 강철인지, 아니면 눅철인지를 알 수 있다.

망치소리에 절로 신명

"남들은 쇠가 단단하다고 하지. 그렇지만 쇠처럼 여문 것도 없어. 아무리 단단한 것도 숯불에 15분 가량이면 엿처럼 흐늘거리고 말아. 그러니 이것으로 모양을 내고 싶은 것은 다 낼 수가 있지. 문제는 쇠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이야. 성질이 나쁜 것이 있는가 하면 눈물나도록 좋은 것이 있어."

망치질을 많이 할수록 성질이 좋아지는 것이 쇠다. 얼마만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했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쇠가 되고 제품이 된다는 것이 이씨의 확신이다.

이씨를 대장장이로 손꼽아주는 또 하나는 그의 이력이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주민등록증이 증명하는 나이는 62세. 그러나 태백산속에서 탯줄을 끊은 그에게 8년은 살아있어도 죽은거나 진배없었다. 당시는 흉역으로 일찍 죽는 아이가 많아 뒤늦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8살 무렵,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풀무쟁이가 되었을 때부터이다. 손으로 풀무를 잡을 수 있게 되자 호적신고를 했다. 따라서 이씨는 호적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대장일을 시작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대장일은 무당처럼 북치고 춤추는 것이 맞아야 해. 신명이 나지 않고서는 일을 못해. 제대로 된 북장단에 몸이 으쓱거리지 않는 무당없듯이 제대로 된 망치질소리에 미적거리는 대장없어."

불과 쇠를 다루는 대장일처럼 힘든 일도 없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불을 일구는 풀무쟁이, 쇠망치로 쇳덩이를 내리치는 메질꾼, 그리고 형태를 만들고 총괄지휘하는 대장. 이렇게 구색이 맞추어졌을 때 대장간이 돌아간다. 그러나 이씨가 자부하는 것은 대장장이의 생명인 담금질의 대가라는 것이다.

담금질. 불에 녹이고 메질하여 모양을 낸 쇠를 물에 넣어 칼날을 단단하게 세우는 작업.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장일의 진수다. 물과 쇠의 온도, 담금하는 시간에 따라 제품의 성질이 결정된다. 때로는 쇠가 너무 강해져서 부서진다. 어떤 때는 성질이 약해지기도 한다. 제대로 담금질이 된 식도는 7~8년을 써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는다. 이씨가 만든 식도가 그러하다.

"지금 칼이라고 나오는 것은 겉만 번지르해. 그러나 성질이 약하지. 담금질이 잘못된 것이야. 쇳날이 검붉게 되었을 때 성질이 변하지 않게 물에 적당히 넣어야 해. 얼마동안 어떻게 담금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대장은 드물어."

담금질은 무쇠에 생명을 부여하는 작업이란다. 따라서 담금질할 때는 60년 이력을 가진 이씨도 등골이 묘연해진다. 모든 신경을 눈, 손끝에 쏟아야 한다. 찰라와 같은 순간의 담금질 여부에 따라 제품의 생명이 판가름나고 만다.

이씨는 메질일을 눈 감고도 한다. 그러나 담금질만은 그렇지가 못하다. 물속에 칼날을 넣는 순간 뒤에서 손님이 "어이 여보게" 하고 부른다면 한나절 품값을 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만다. 제품이 쓸모없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서툰 대장은 이 담금질에서 오히려 물건을 망치기 일쑤다. 이씨가 그러했다.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뭉쳐진 이씨. 35년전, 아버지에게서 분가하여 임계에 대장간을 차려 놓았을 때였다. 손님이 맡겨놓은 칼을 담금질하다가 도리어 칼을 망쳐버렸다. 손님의 질책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장장이로서의 자존심은 도저히 삭일 수가 없었다. 끝내 한나절을 화장실에서 목을 놓아 울고 말았던 것이다.

눈썰미 좋은 이씨. 그의 실책은 수천번의 실험을 요구했다. 몇년이 지나고 나서야 불에 달구어진 쇠와 물의 온도, 쌍방의 함수관계를 터득하게 되었다.

"오래전 일이지. 하루는 담금질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 최고간다는 목수가 찾아왔어. 자귀를 하나 만들어 주었지. 그후 얼마있다가 그 목수가 왔어. 최고라는 거야. 평생에 그때처럼 기쁜 때가 없었어."

'남 못할 일 하지말자'

이씨가 만드는 것은 주로 농기구다. 낫 호미 쇠스랑 곡괭이 도끼 식칼에 이르기까지 줄잡아 50여종. 강원도 산골농민이 주고객이어서 낫이 가장 인기있다.

쇳덩이를 한뼘가량 잘라 불에 4~5차례 달구고 천번이 넘는 망치질을 해야 낫 하나가 완성된다. 이씨가 만든 낫은 반월형이다. 여느 낫보다는 넓고 두껍고 날의 길이가 짧은편이다. 미끈하게 빠진 낫이지만 아무리 나무를 쳐대도 칼날만은 변함이 없다. 지난해 7천개를 만들었어도 부족할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난 아직 강릉과 임계를 떠난 일이 없어. 여행 한번 못해봤어. 그래도 세상돌아가는 것은 손바닥이야. 정선땅은 누구 집 숟가락 휘어진 것도 알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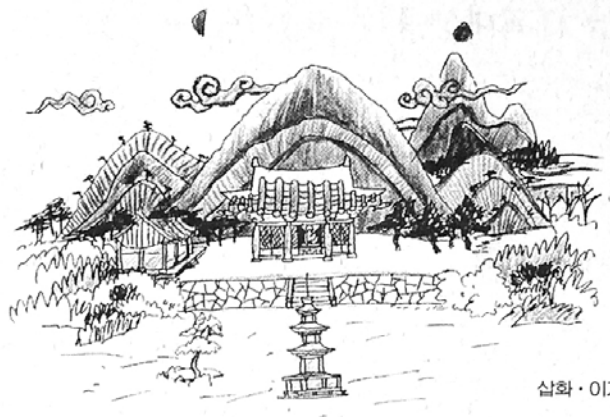
교통이 불편한 산골, 밭농사로 겨우 먹고사는 이들에게 연장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 연장을 손질하러 대장간을 찾으려면 큰 마음을 내야 한다. 하루품이 걸리기 때문이다. 할머니손에 이끌려 절을 찾았던 이씨에게 '남 못할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 평생 살아온 원력이다. 이 우직함이 강원도 골짜기 농민들을 허탕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씨의 대장간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씨의 대장간은 늘상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은 이씨의 망치질을 장단삼아 이 소식 저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니 정선에서 이씨만큼 정보가 빠른 이도 없다.

"망치를 한방이라도 더 내리치면 칠수록 쇠는 단단해지지. 망치질 많이 했다고 밑지는 것이 없어. 사람은 속일 줄 알아도 쇠는 속일 줄 몰라. 그저 근실하게 쇳덩이 두들기며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탕다닥 탕, 탕다닥 탕탕. 일정하게 내리치는 이씨의 쇠망치소리. 그 소리는 장단과 리듬을 갖춘 아름다운 음악이자 가장 진실된 삶의 소리이다.

임계=이준엽 기자



삽화 · 이기선

자연의 성품을 직관하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⑯

사유(思惟)

'개발'로 포장된 문화훼손 안돼

창의하는 정신은 아름다운 것이다. 사고와 사유는 정신문화를 만들어 내는 힘이다. 모든 종교가 깊은 명상에 잠기도록 수양하는 것은 정신적 세계를 고양하는 길이다. 종교가 가라앉는 문화를 갖지 아니하고 들떠있는 문화를 갖게 한다면 난장이 될 것이다. 고함과 싸움이 뒤엉켜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된소리 속에는 앙칼진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거룩한 법당안에 들어오면 난장에 있던 고함과 다툼의 목소리가 가만히 가라앉고 조용한 마음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가라앉고 차분하게 눌려진 마음에 발원과 소원이 깃들게 된다. 기도가 바로 그 시간에 들어와야 한다. 시장 한복판에서는 기도의 기미가 들어오지 않는다. 아귀다툼의 상술만 북치게 되고, 빈 양철을 두들기게 된다.

산은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등굴나무, 모든 나무가 세상소리를 들이 마셔버리고 고요하고 신선한 공기를 내어 놓는다. 그래서 수도자는 산으로 들어 온다. 신선이라는 글자도 사람이 산에 잘 들어와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산처럼 사는 모양을 상징한 것이다. 仙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 사람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이 산에서 나온 문화를 보아라. 천년이나 오래오래 산 나무로 관각한 고려대장경을 보아라. 몇 억만년 가만히 침묵한 바위돌로 새긴 석굴암을 보아라. 이 고려대장경과 석굴암 그리고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하니 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

우리는 산에서 자라온 모든 생명을 잘 다루고 아끼면 산이 주는 혜택을 받지 않는가. 이 모두가 깊은 명상과 사유에서 이룩된 정신문화이다. 지금은 과학시대라고 한다. 과학시대는 발명의 시대이다. 발명은 자연을 화학반응토록 하는 것이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물질로 변질시켜 유용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이나 석굴암, 종묘는 자연성을 인간의 손때가 약간 묻어나게 하는 예술인 것이다.

사람은 문화와 예술을 창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산에서 익혀온 숨결로 드러내는 것이다. 나무의 결이나 돌의 맥을 찾아내어 나무를 상하지 않게 하고 돌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쪼아내는 것이 예술의 힘이다. 이러한 예술의 힘은 자연의 성품을 직관하는 슬기로 드러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슬기가 없는 사람은 재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재질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 것도 창출해 내지 못한다.

해가 바뀌는 섣달이다. 우리는 얼마나 산에서 살아온 사람이 되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민둥산을 만나면 민둥산에 바람이 쉬어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바위만이 있는 산을 만나면 바위벽에다 부처님의 미소를 풍겨보는 그림을 각인해 보아야 한다. 나무도 심지 않고 산에 드는 사람은 흉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바위산을 보면서 팔만사천의 보살상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야만인과 다를바 없다.

우리의 조상들이 산 꼭대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마니산의 기도처,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의 하늘터가 바로 산에서 치성하는 마음공부가 아니런가.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이 세계에서 기리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불교인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 가꾸는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산하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개발이다, 위락시설이다, 수자원을 개발한다 등으로 어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기고 파헤쳐져가고 있다. 자연의 응징을 기대하면서 하는지 모르지만 난장에서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이익추구의 상술을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목쉰 호객으로 몸살을 겪을 것이다.

해가 저무는 섣달. 산으로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 늘푸른 소나무의 바람소리를 들이 마셔보면 명상과 침묵이 자리할 것이다. 이 명상과 침묵에서 석굴암의 미소를, 고려대장경의 슬기를 상응시켜 보아라. 우리도 문화를 뽑아낼 수 있는 물레가 있었음을 꿈꾸게 될 것이다. 영겁의 자연, 산의 문화를 다시 물레에 올려 놓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세계일류 위대한 유산이요
민족의 자존심인 국보 **팔만대장경** 번역본

한글 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정가 1권 12,000원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전화:(02) 272-2398
(02) 269-2972
FAX: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현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쟈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혜와 자비의 말씀(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외)
155. 방광대장엄경(외)
156. 과거현재인과경(외)
157. 문수사리문경(외)
158. 무소유보살경(외)
159. 금색동자인연경(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 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외)

"종교성 바탕둔 교육학 필요"

7개종교학술대회 불교사상등 전인교육 제시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지난 15일 동국대동국관에서 '종교와 인격교육'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독교 대순진리회 무교(巫敎) 등 한국의 대표적인 7개 종교의 인격교육을 조명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종교에서 1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석, 교육문제에 종교계가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측 발표자로 나선 김용표 연구원(동국대 佛文硏)은 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상이 석가모니불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은 인격상의 실현방법으로 △발보리심에 의한 종교적 회심(回心) △반야바라밀다(지혜)의 수행 △불성과 깨달음의 현전화(現前化) 등을 제시했다.

'현대교육의 문제가 무명과 번뇌에서 오는 것'이라고 파악한 김씨는 "자신과 세계를 바르게 보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이 현대교육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토론자인 동국대 한명희교수는 "한국의 다종교상황에서 종교교육은 종파(宗派)교육보다 인격의 궁극적 변화를 야기하는 종교성(宗敎性)교육이 돼야 한다"면서 이런점에서 불교사상은 전인(全人)교육의 목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측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이기동교수는 "오늘날 한국의 교육학은 서양식 이론 일변도"라며 "우리의 심성과 체질에 맞는 공통적인 종교성을 찾아 새로운 한국적 교육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심성과 체질에 맞는 한국적 교육학을 주장한 종교교육학회 학술회의.

첨성대 '병모양 佛塔' 이색 주장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瞻星臺)가 불탑(佛塔)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궁중유물전시관 전시과장 강순형 학예연구사는 건축전문지 〈플러스〉 12월호에 기고한 '전통의 슴결'이란 글을 통해 "첨성대의 기단을 포함한 겉모습이 삼국시대의 장경호(長頸壺;목긴항아리)나 기대(器臺;그릇받침)의 겉모습과 비슷하다"는 것. 〈대반열반경〉에서 도로나 사문이 부처님의 사리를 8개국에 나눠주고 난 뒤 사리를 담았던 병과 다비후에 남은 재로 각각 병탑과 재탑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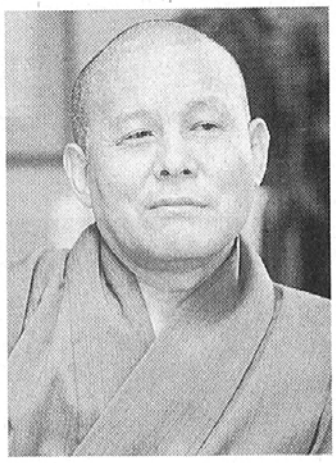
'95 한국종교연감' 제3호 출간

한국종교사회연구소(소장 윤이흠)가 〈95 한국종교연감〉 제3호를 발간했다. (02)873-8676

"전통 내전의 전승은 물론, 외전까지 두루 겸비한 선·교회통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三學院) 개원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통불교적 교학체계를 바탕으로 수행과 교학, 전통과 진보가 조화된 개방학림으로 삼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6월 16일 문을 연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5년간의 화엄학, 한국불교금석학 및 원전연구회의 탄탄한 교육활동과 각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연구위원회의 연구인력 및 학술 재원을 바탕으로 개설되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스님.

"禪·敎 회통한 인재 양성"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 여는 지관스님

1월3일 개원…"사학전당으로 육성"

삼학원은 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삼장(三藏)의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아함경전 및 근본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인 전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화엄학과 한국불교금석문, 선전(禪典), 선수행 등을 수의과(隨意科) 필수로 지도하면서 교단밖에서 이루어진 진보적인 불교학 연구결과를 섭수하게 된다. 그리고 불교 고유의 이수방법인 논강(論講) 및 전강(傳講)의 전법(傳法)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주요한 목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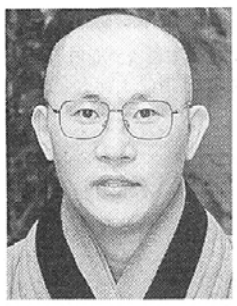
학자보다는 사상가의 양성이 '궁극적인 목표'인 삼학원의 이수대상자는 강원·중앙승가대·동국대 졸업 등의 학력과 석사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학인이다. 이수과정은 1년과정의 예비과와 4년 과정의 본과로 짜여져 있다.

94년부터 상설 운영중인 예비과는 불교어학연수과정(범어 팔리어 티벳어 중 택일)과 일반어학연수과정(영·불·독·중어 중 택일), 불교문헌학·선종사·한국불교사등 교양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본과는 △아함경전강독(필수, 1년)과 △아비달마교학·중관불교·유가행불교·화엄교학등 불교논서연찬(전공1·선택2, 3년간) △한국불교금석문·경덕전등록·선문염송등의 수의과 △2안거 이상 선수행(스님 필수) 등으로 진행된다.

지관스님은 "강주의 심의에 의한 전강을 통해 부족한 강사스님을 양성하는등 종단 학림의 활성화와 공학(公學)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학을 진흥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서교부 및 접수(1월3일~2월15일) (02)765-9602~3

김재경 기자



물리학박사로 東大대학원 입학 청아스님

"불교 배워야 물리학 눈떠"

는 물리학박사 청아스님(38)은 "물리학으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불교를 통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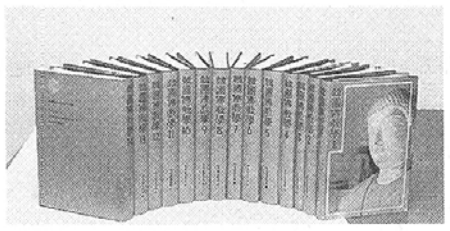
스님은 지난 92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초기우주에 붕괴되는 입자들의 우주론적 제약들(Cosmological Constraints On Early-Decaying Particles)〉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펜실베니아대학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보다 근원적인 진리체계에 몰입되어 3년전 곧장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헤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참나를 발현시켜 참진리를 얻으려는 원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교의 정수를 간직한 한국불교를 찾게됐다"고 말한다.

"4차원의 인생에서 불교를 만난 인연으로 더이상 바랄게 없다"는 스님은 "세계최고의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불교의 우주론등을 물리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재〉

"물리학과 철학 등은 불교라는 진리의 큰바다에서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물질계와 정신계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진리체계입니다."

최근 동국대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



◇〈한국불교학〉 20집을 모은 영인본 전14권.

'한국불교학' 영인본 보존판 14권 펴내

한국불교학회의 학회지 〈한국불교학〉이 영인본으로 묶여져 나왔다. 이번에 나온 영인본은 지금까지 발행된 학회지 20집을 모두 14권으로 묶었다.

한국불교학회장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그동안 불교학 연구성과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전달됐으나, 영인본 발간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하는 통로를 마련했다"며 "불교학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인본 14권에는 부록으로 2백50여편에 이르는 수록논문 및 필자별 논문 색인을 실었다.

(02)723-3115~6

한철 선방에 들고싶은데 경책을…

문 스님께서는 자리를고 앉아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은사스님께서 이번 한 철만은 꼭 선방에서 보내라고 권하시기에 그리해서 안될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방부를 들였습니다. 경책의 말씀 부탁합니다. 〈가야산에서 한 학인이〉

답 채찍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채찍에 속지마세요. 경책의 말은 돌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날짐승 들짐승에서도 나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왜 경책을 못하겠습니까?

이 공부는 관 속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죽어야 관 속으로 들어가지 죽지 않고서야 관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속지 마세요.

마음이란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몸 쭈그려서 매어놓는다고 통쾌한 소식 나올까요? 형식에 매이지 말고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스님께서 원하신다니까 고집스레 그렇다, 아니다 할 것은 없다 싶겠지만 마음으로 쫓겨서는 안됩니다. 이 몸뚱이가 그대로 토굴인데, 내가 토굴을 끼고 다니면서, 내가 선방을 끼고 다니면서 따로 토굴찾고 선방찾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토굴에다 또 토굴을 밀어 넣어서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말 뜻을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성불하신 분은 사바세계 안오는지

문 성불하신 분들은 다시 사바세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선주·광주 광산구〉

답 다시 나오지 않고 나오고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면 부처가 아니지요. 일체만물만생 모두가 나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다면 구태여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분별하겠습니까? 지옥이든 천당이든 자유자재이지요. 중생이 있으니 부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없다가 그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천백억 화신으로 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외에 더 공부할 것은

문 스님께서는 자성참구의 방편으로 주인공에 되돌려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외에 더 할 것은 없는가 여쭙습니다.

〈최영조·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답 왜 없겠습니까만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으로 따져선 안됩니다.

공부를 진짜로 할려면 모나는 것도 둥글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사물을 보고 이런저런 탈이나 잡으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눈밝은 줄 안다면 탈이 난 것과 안 난 것을 한데 합쳐서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다 보고 듣고 둥글게, 모나지 않게 소화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둥글게 말하고 둥글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편이란 다름아니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행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편이란 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음공부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문 스님! 마음공부도 진전이 없고 생활도 고달프기 이를데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주실 수 없으신지요.

〈조동진·성남시 중원구 상대동〉

답 내가 오히려 답답하군요. 그렇게 여러번 놓고 살라고 일러드리지 않았던가요.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에 매달려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일부러 또 생각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똘똘뭉쳐 엉킨 실타래처럼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도 가지고 다니는 게 없지요. 보는 것도 가지고 다니질 않고 듣는 것도 가지고 다니질 않고 만남도 가지고 다니질 않지요. 그냥 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지어내서는 그것을 뭉쳐가지고 다닙니다. 생각조차도 나면 나는대로 놓으라 했는데, 무쇠·잡쇠 닥치는대로 용광로에 넣으면 재생이 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놓으라고 했는데 끌어안고간다 이 말입니다. 나오면 또 넣고 나오면 또 넣고 마음의 용광로에 연방 넣고 연방 나오고 그러면 그뿐인데 그렇게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혼자는 없습니다. 바깥살림으로 사는 인생이나 안으로 사는 살림이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데 혼자 먹고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하는게 다 더불어 한 것이고 내 몸 속의 생명체들과 또 더불어 하는 것인데 혼자했다, 내가했다, 자기가했다라고 고정된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생각도 들고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남을 원망하고 무엇이든 탓을 하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고달프고 짜증스럽고 할 수 밖에요.

놓고 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놓기는 커녕 놓는다는 것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니까 주인공을 이름으로 찾고 형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하는 내용이 있지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일체제불의 몸이 내 몸이요 내 생명인데 하나로 몰아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법당에 들어서도 하나요 예불을 해도 하나요 법당문을 나서도 하나입니다. 어디 부처따로 나따로, 너따로 나따로가 있습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서 놓질 못하면 어디서나 걸리고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개원 및 전형 안내

■ 취 지

일천육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 온 한국불교는 원융한 교학전통과 찬연한 수행가풍을 이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교사 전체, 그리고 한국불교사를 通別의 世間的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성쇠 등 多事多難함이 長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무상함을 넘어 佛陀의 慧明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傳燈의 찬연한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위대한 佛力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장구하고 위대한 역사적 전통이 어느 한 사상이나 사조의 생멸변화와 비견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며, 그 원천은 방대한 三藏의 敎學體系와 三學의 두터운 修行傳統이 일구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느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불교 만의 이 탁월한 역사적 자산은 결국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계속되었던 교학과 수행으로 점철된 正法回歸精神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근본적 중흥 또한 佛陀의 慧明과 傳燈의 수행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에 있으며, 민족의 교화와 인류에의 봉사 또한 이에 바탕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중흥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고자 1991년 6월 16일 문을 연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硏究院은 근 5년 간의 화엄학, 한국불교금석학 및 원전연구회의 탄탄한 교육활동과 각 대학 교수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문연구위원회의 연구인력 및 학술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교육중흥을 위한 원력을 재정비하고 교학과 수행의 기틀을 다지는 佛敎原典專門學林인 '三學院'을 개설한다.

■ 목 적

불교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三藏의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아함경전 및 근본논서 등의 연찬을 통한 교학의 체계적 전수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한국불교의 수행전통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화엄학, 한국불교금석문과 禪典, 禪修行 등을 隨意科 필수로 지도하며. 아울러 교단 밖에서 이루어진 진보적인 불교학 연구결과를 섭수하되 불교 고유의 탁월한 이수방법인 論講 및 傳講의 傳法傳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 이수대상자

1. 三藏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2. 講院·중앙승가대·동국대학교 졸업 등의 학력을 갖춘 자
3. 석사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자
4. 이상의 자격과 함께 본 연구원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이수과정

1. 예 비 과 (94년부터 상설 운영 중)

☐ 어학연수 및 교양과정 (1년)
- 불교어학 연수과정 : 범어, 팔리어, 티벳어(택일)
- 일반어학 연수과정 :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택일)
- 교 양 과 정 : 불교문헌학, 선종사, 한국불교사

2. 본 과

☐ 아함경전강독 (필수, 1년)
☐ 불교논서연찬 (전공 1, 선택 2, 3년간)
- 아비달마교학 (俱舍論)
- 중 관 불 교 (中論, 大智度論)
- 유 가 행 불 교 (解深密經, 攝大乘論, 瑜伽師地論, 成唯識論)
- 화 엄 교 학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 수 의 과
- 한국 불교학 : 한국불교금석문 (91년부터 상설 운영 중)
- 禪典 강독 : 景德傳燈錄, 禪門拈頌

☐ 선 수 행 (비구, 비구니 필수)
- 이수과정 중이나 이수 후 禪院에서 2안거 이상 수행 (수행 이력이 있는 경우 소급 인정)

▣ 이수방법

제1년 1. 불교어학연수 2. 아함경전강독 3. 금석학 4. 불교문헌학 5. 일반어학연수
제2년 1. 아비달마불교연찬 2. 화엄교학 3. 금석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제3년 1. 중관불교연찬 2. 경덕전등록 3. 금석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제4년 1. 유가행불교연찬 2. 선문염송 3. 금석학 4. 주제별 특강 및 세미나
제5년 1. 선수행 2. 연구년 (논문지도 및 정기 세미나)

▣ 이수일정

(※ 禪修行을 위해 해제기간 동안에 수업)

☐ 전기수업 (음력) 1996년 1월 20일 ~ 4월 10일
(양력) 1996년 3월 9일 ~ 5월 26일
☐ 후기수업 (음력) 1996년 7월 17일 ~ 10월 10일
(양력) 1996년 8월 30일 ~ 11월 20일

▣ 졸업 후 지도 및 특전

1. 본과 입학 후 년 1회 이상 연구실적 발표 (심의 지도 후 본원학술지 『伽山學報』에 게재)
2. 본과 이수 후 2년 이내 연구 결과 제출 심의 졸업
3. 졸업 후 연구위원회에 소속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

▣ 전 강

- 강주의 심의에 의한 전강

■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면 접

■ 제출서류

1. 스 님

①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② 수행이력서(1통)
③ 승적증명서(1통) ④ 최종학력증명서(1통)
⑤ 추천서 (학장, 본사 주지 또는 은사스님)

2. 일 반

①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② 이력서(1통)
③ 최종학력증명서(1통) ④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추천서 (소속 단체장, 또는 지도교수)

■ 전형일시 (이하 양력)

1. 입학원서 교부 : 1996년 1월 1일~2월 15일
2. 입학원서 접수 : 1996년 1월 1일~2월 15일
3. 전 형 일(면 접) : 1995년 3월 6일 (음력 1월 17일)

* 현재 연구위원회 회원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본과 입학 가능

문의처 :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02)765-9602~3 FAX 02) 765-5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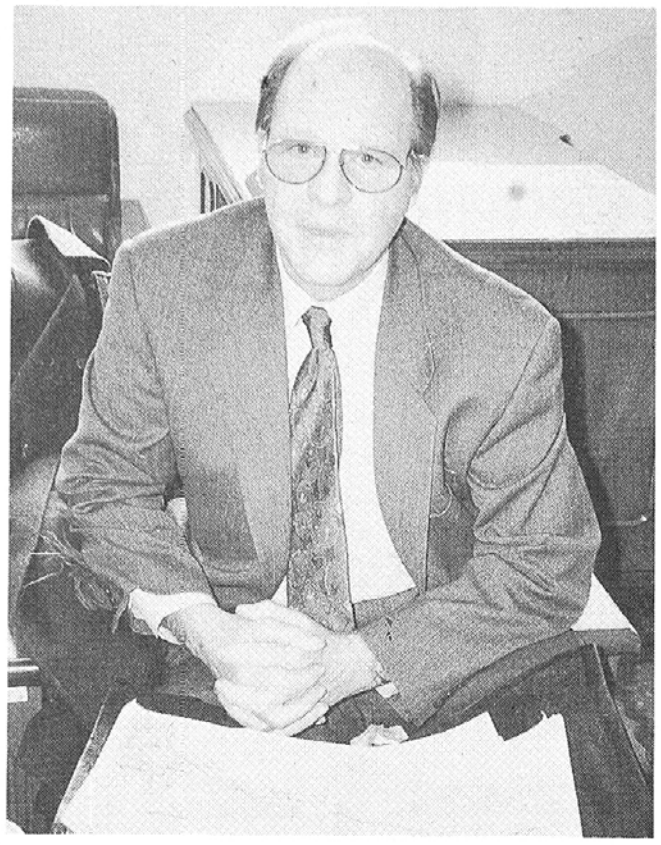
社團法人 伽山佛敎文化硏究院 院長 李 智 冠

"세계적 문화유산 잘 지켜주길"

석굴암등 인증서 전달한 세계유산총 드로스트 사무국장

"경주는 신라의 천년고도로 건축유산뿐만 아니라 고분도 많이 남아 있는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만일 고속철도가 경주도심으로 통과해 석굴암등 경주지역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면 세계유산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석굴암, 해인사·팔만대장경판·판전, 종묘 등 우리 문화재 3건에 대한 유산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 내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베른드 폰 드로스트 사무국장(57세·독일)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수요 인터뷰

국가차원 체계적 보존을

드로스트 사무국장은 지난 16일 오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공인받은 해당 유산이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내용의 세계유산 인증서를 전달한 뒤 17일~19일까지 해인사와 불국사 답사, 세계유산 등록 기념세미나, 종묘고유제 및 세계의 문화유산 경축음악회 등에 참석하고 20일 출국했다.

-한국 문화재 3건이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한국이 경제대국이란 점 말고도 문화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입니다. 또한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를 당사국이 행정-재정-기술적으로 더욱 철저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도 이제부터 한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등은 뛰어난 인류의 유산입니다. 특히 이들 문화유산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고 한반도 통일 후 남·북한 공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계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보존책을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젠 보호와 관리에 전세계가 주시할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개발논리와 문화재 보존 차원을 두고 국민들의 견해가 분분합니다. 최근 경주에 고속철도 통과를 둘러싸고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지역도 둘러보셨을 텐데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단일 문화재에 대한 훼손보다는 유적 경관등 주위 환경의 파괴입니다. 경주는 수많은 문화재와 고분등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경주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계획은 도시를 두동강 내는 등 심각한 문화적 훼손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뿐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경제이익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는데요. 노선에 대한 좋은 묘안을 내신다면.

▲고속철 경주통과 노선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안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문화유적이 밀집된 도심지역은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건천지역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도심관통 지역은 어느 나라나 이미 타지역보다 개발이 다된 터라 개발 필요성도 그리 높지않을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집트가 피라미드 주변에 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설득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스톤헨지 주변 도로공사, 그리스 델피신전 부근 알루미늄공장 건설등도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공장건설을 중단한 사례입니다. 경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고속철도도 도시근처를 지날 때 도심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문화뿌리 경주를 지켜야

-세계 문화유산들이 계속되는 개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세계문화유산 협약의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 국제적인 여론환기와 최악의 경우 등록취소 등 강경한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위기리스트'에 올라있는 세계문화유산은 80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제는 문화유적의 보호를 통해 문화민족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들이 이처럼 개발과 함께 열악한 기후환경으로 위기에 처해있어 보존을 위한 구체적 공동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한국은 문화적 뿌리의 하나인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속전철의 경주통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드로스트 유네스코유산위 사무국장은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산림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73년부터 유네스코 생태학 기획전문가로 인연맺은 후 85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81년에는 유네스코가 설악산을 생물권 보존구역 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단원으로 내한 하기도 했다.

위영란·이윤호 기자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유물보존·관리 세계 주시"

훼손위기 처한 세계유산 80여건 '등록 취소 검토'

나의 수행일기



김 영 만 〈불교목판화가〉

코흘리개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가던 곳이 있었다. 조그마한 뚤 하나 건너고 산길 종일 걷다가 수풀 사이 오솔길을 돌아서면 펼쳐지는 돌의 바다. 천불천탑이 있는 전남 화순군 도곡면 운주사다.

무명 바지저고리를 입었던 춘양국민학교 시절, 봄 가을이면 운주사로 소풍을 갔다. 돌부처님 배위에 올라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락을 먹었다. 돌부처님과 돌탑은 근엄하다거나 무서운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운주사는 우리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는 그 부처님들이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내가 불교에 입문한 가장 큰 계기는 태안사 포교당인 광주금륜회에서 발행한 청화큰스님 법어집 〈마음의 고향〉 책표지 그림을 삽화하게 되면서이다. 이때가 1990년. 유행사조의 끌림에 현혹되지 않고 나만의 작품만을 모색하던 때였다. 나의 참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다. 이후 나의 작품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고향회복이었다. 잃어버린 유년기의 향수와 사라져가는 우리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작품 화두는 오직 '심일견처(心日見處)' 즉,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을 좇는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을 망각하지 않고 외적인 유물주의적 화풍를 지양하고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것. 10여평의 작업실 공간이 나의 수행처다. 그리고 깎고 칼로 파는 불교목판화 작업이 나의 수행이다.

94년에는 목판화와 글모음집인 〈고향가는 길〉을 펴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독자와 전시장을 찾은 분들께 나의 작지만 뜨거운 부처님의 목소리를 전해줬다고 자부한다. 물론 부처님의 광대한 설법의 바다에 비교한다면 한모금의 물에도 못미치겠지만, 나는 나의 온몸을 던진 공양이었다.

이즈음에는 민족문화의 피폐와 심각한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는 식민지 암흑기와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 비민주적인 억압체제의 쳇바퀴속에 갇혀 있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물질적 욕구만이 모든 것인 양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정확한 진단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인간의 몸속에 무수한 세포들이 상호의존적 연관구조를 이루듯이 사회 또한 관계와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유지된다. 이러한 관계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증식하고자 하는 것이 암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삶은 사회의 암적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육체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만이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듯이 나 자신의 창작활동도 삼독심이 제거될 때만 진정한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독심의 제거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며 철학이다. 대상이 아니고, 지배가 아니며, 욕망의 발산도 아니어야 한다. 이럴 때 진정 개인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상호의존적 연관구조가 이뤄지는 것이다.

창작 화두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삼독심 버리자' 발원하며 고향회복 작품 구상



누구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에도 표현은 달리 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이런 삶이 가치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했고 주위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불교는 가르침과 더불어 실천수행을 무엇보다 강조한 종교이다. 실천이라고 무슨 거창한 움직임이 아니다. 아침 저녁 108배가 나의 수행이라면 수행이다. 무슨 특별한 발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절을 반복하며 '삼독심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만 한다.

이같은 기원은 나의 작품활동과만 관계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처한 오늘의 인류문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있는 단초이며 해결방안이다.

나는 앞으로도 목판화에 매달릴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회화에 뿌리를 내리고 환경파괴 현실에 대한 경종을 창작을 통하여 두드릴 것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보살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판화작업도 수행과 작업이 일치될 때 더욱 깊은 안목을 확보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무아의 세계에 몰입해서 대자유속에서 꿈틀대는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 이뤄진다. 마음의 아름다움과 청정함을 끝없이 노래하고 싶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맥을 책임지는 경맥중 베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죽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법열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둥 랑 받침대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엑기스와 랑받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합자리 경혈속으로 새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맺이는 쑥엑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터페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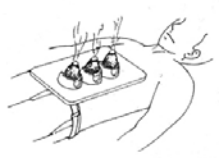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비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합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합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 : 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품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야간 : (0342) 706-3060

'여시아문'이 뽑은 올해의 불서 10

삼풍백화점 붕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너무나 큰 충격, 그래서 집단 히스테리 현상을 우려했던 일들이 올 한해에 터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말그대로 다사다난했던 95년을 역사속으로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시아문'이 집계한 올해의 불서 10권을 소개하며,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의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 올해의 불서 10권은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에서 판매된 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가운데 수행 또는 신행과 관련된 불서가 절반을 차지해 불자들은 일상생활의 지침이 되는 불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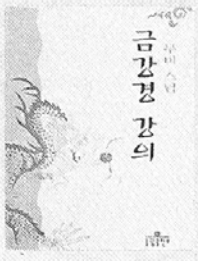
〈편집자 주〉

수행·신행지침서 선호 '꾸준'

생활중 겪는 사례 인용한 금강경 해설

금강경 강의

통도사와 범어사 전통강원의 강주를 역임한 무비스님이 금강경 전32분의 뜻을 밝힌 해설서. 뜻풀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사례들을 인용,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금강경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불교사상의 중심이 되는 경전으로 꼽힌다. 〈무비 지음, 불광출판부, 5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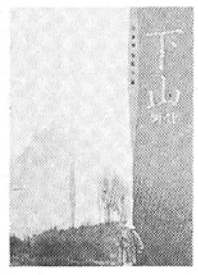


'현실 참여통한 깨달음' 그린 구도소설

하산

1969년 민통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의문을 남긴 홍주스님의 자전적 장편구도소설. 계율을 생명으로 여기는 범주수좌와 중생구제를 위해서는 파계도 서슴치 않는 석파수좌 등 대립되는 두 인물의 갈등과 고뇌를 통해 깨달음이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산'을 통한 현실에의 전력투구임을 시사한다.

〈홍주 지음, 불지사, 5천5백원〉



일타스님 기도 성취담 재미있게 구성

기도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스님 자신과 도반 선배 제자 그리고 신도들의 기도성취 체험과 전래되는 기도영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또 모두 41명이 승려가 된 일타스님의 집안 얘기를 공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일타스님은 "기도성취의 비결은 '간절 절(切)'에 있다"며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자력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한다. 각 이야기마다 간략한 해설을 붙여 올바른 기도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타 지음, 효림출판사,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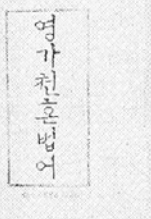


월명·숭산스님등 고승들의 영가법문

영가천혼법어

신라시대 월명스님의 '제망매가'로부터 숭산스님의 고암스님 추모사에 이르기까지 역대고승들의 영가법문을 한데 모았다. 저승길(冥路)을 밝혀주는 등불을 영가법문이라 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그시대의 사표가 되는 고승이 법문을 했다. 성우스님은 "나라 안에 끔찍스런 일들이 너무 많아 이런 법문으로나마 업보의 바람을 가림하는 마음으로 책으로 엮었다"고 밝혔다.

〈석성우·김규대 엮음, 도서출판 토방, 1만5천원〉



틱낫한스님 자비로운 수행·명상법 찾기

삶에서 깨어나기

행선(行禪)이라는 독특한 수행법과 〈소설 붓다〉의 저자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베트남 출신 틱낫한스님의 명상수행 안내서. 그는 이 책에서 자비로운 정신과 명상법은 설겆이하기, 전화받기, 차마시기 등 일상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평화로움에 다다를 수 있음을 여러 일화와 자신의 실제경험을 통해 전해준다.

〈틱낫한 지음, 장경각, 5천5백원〉



정진대중과 문답으로 밝힌 선의 요체

선 백문백답

동화사와 부산 금모선원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진제스님이 수선회 금모선원 등에서 있은 정진대중과의 선에 관한 문답을 통해 선의 요체를 밝혔다. 진제스님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며 "바른 법을 구하는 철두철미한 생각을 갖고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수행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한다.

〈진제 지음, 파란나라, 3천원〉



자비의 전화 '신행상담' 답변내용 묶어

알기쉬운 불교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 불교인들이 늘상 느끼는 불교에 대한 의문점들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놓은 불교신행 입문서. 불교방송의 '자비의 전화'에 쏠아진 신행상담을 성열 혜창 해주 혜담 일연스님이 답변한 내용을 3백 항목으로 정리했다. '불보살의 세계' '참나를 찾아서' 등 16장으로 구성, 불교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씻어주고 있다. 〈불교방송 편성부 역음, 불교방송, 5천원〉



전각·석물등에 깃든 신앙적 의미 살펴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일주문 천왕문에서부터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지나 산신각에 이르기까지 사찰에 있는 모든 조형물은 우연히 거기에 세워지고 놓여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정신의 소산이다. 이 책은, 왜 사찰이 산중에 있으며, 각종 전각과 석물에 깃든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91년 출간되어 불교출판문화상 저작상을 수상했으며, 문체부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현준 지음, 교보문고, 7천원〉



성철스님 '생명의 참모습' 등 법어모음

영원한 자유의 길

지난 93년 11월 열반한 전 조계종종정 성철스님의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 '생명의 참모습' 등 13편의 법어와 성철스님의 행장·약력을 실었다. 성철스님은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고 설파하고 있다.

〈성철 지음, 장경각, 2천5백원〉



천주교 믿던 의사의 인도 구도여행기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고,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천주교 병원에서 근무했던, 그래서 견고한 로마카톨릭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한 의사의 구도여행기. 네번의 여행을 통해 만난 인도는 '아름답고 영적이고 신성한 땅'이며, "히말라야 어느 계곡에서 완전히 실종되는 것. 그리하여 그곳에서 이승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그의 바램이다. 저자는 또 인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임현담 지음, 효형출판사, 6천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우징승 '선의 황금시대'

어느 서양인 학자가 "중국인은 가장 실리적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일체의 소유를 거부하는 소수인이 있다"고 하였다. 일체의 소유를 거부하는 바로 그 소수인이 중국의 사상계를 이끌면서 부정과 탐욕의 현실세계를 밝혀온 선사들을 지칭한 것임에 틀림없다.

저자 우징승(吳經熊)은 미국에서 교수와 외교관으로 오래도록 활약하면서 중국의 선을 서양에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선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 1967)를 저술하였다. 선은 영문자로 Zen이 아니라 마땅히 chan이 되어야 할 것인데도 굳이 일본식 발음을 따른 것은 초기의 동양문화가 불행하게도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서양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선의 소개가 스즈끼 다이세쯔에 의하여 대부분 이적 편견성이나 전문서로서의 딱딱한 벽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물론 낭만적 문학작품과도 다르다. 여기에는 별난 일화, 비논리적 유머, 기이한 행위와 은밀한 언어들로 가득차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신비의 베일에 가린 선의 심오한 이치를 어렴풋이나마, 그러나 흥분속에서 맛보게 한다.

1975년 필자가 대만 중국문화학원에 가서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할 겸 일년간 머



조 영 록
〈동국대 교육대학원장〉

중국 선가 계통 체계적 파악

禪의 심오한 이치 쉽게 서술

루어 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이다. 어떻든 이 책은 중국고전에 밝은 중국의 학자가 자기네 선을 서양에 소개한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충실한 안내서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이 책은 7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당나라시대 위대한 선사들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뜻을 쉽고 명쾌하게 풀이한 설명서다. 육조 혜능을 위시하여 마조 황벽 조주 석두와 같은 거장들의 사상과 행동을 일별하고, 이어 위산 동산 임제 운문 법안 등 '오가'의 특징적 선풍을 살피고 있다. 가섭존자와 달마, 그리고 초기 선사들의 이야기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선가의 계통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선풍을 특징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서술은 아주 평이하고 유머러스하여 어떤 효과를 때, 당시 유학생 부부였던 정인제 서강대 철학과교수와 부인 손정숙여사의 신세를 많이 지게 되었다. 정교수는 저자 오경웅선생의 중국철학 강의를 들었노라며, 특히 그 분의 〈선의 황금시대〉야말로 필생의 역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람에, 평소에 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길잡이 될만한 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나로서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뒤 이 책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사들의 그 독창적 통찰력과 활기찬 개성을 적절히 묘사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질식할 것 같은 현대 산업사회의 정신적 상황에 새활로를 제시하고, 또한 동서 문화의 궁극적 화해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고 있다.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48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8명 취득 예정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1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 제일서림 : 424-0801 부산 영광도서 : 252-855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사찰 및 별장 최적지

■위치 :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입구(강촌)로 소양강을 끼고 도로를 접한 경춘간 최고의 사찰적지로 사계절 석간수가 솟고 있음

■거리 : 서울(청량리)에서 1시간 소요
(기차-매시간, 버스-10분 간격)

■면적 : 총 2000평 중 대지 120평
(현재 건물 30평, 신허가 50평)
-이외에도 기도원 적지 보유하고 있음
-강촌 유원지 500평 내 농가 주택 있음

연락처
(0361) 51-6517, 54-1927
이 평 해 (합장)

※가격은 현지 답사후 결정하십시오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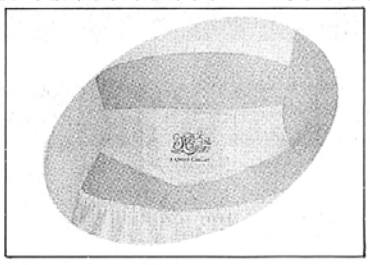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152호
■사찰명 : 원효사
■주 지 : 한영호 (학봉)

상기 사찰 및 주지는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하오며, 그 증거로 탈종서를 공고합니다.

1995. 12.
한국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여성 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민함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02) 755-9821

불심 세계화 가속… "참자유 찾는다"

송년특집 — 지구촌 불교

1995년 을해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사고와 사건이 줄을 이었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속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해를 마감하며 지구촌 각국에서 일어난 불교의 움직임을 조명해 본다.

고등교육이수자 불교관심 증가

프랑스 가톨릭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도 올 한해 불교문화의 유입은 조금씩 이루어졌다.

프랑스 불교연합회(UBF)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불교인구는 60만 정도이며 대부분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30~50대 연령층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인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해주는 곳은 명상센터로 올 한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프랑스 문화속에서 한국불교의 정통을 유지해주는 곳은 지난 93년 토르시에 세워진 길상사. 현지교포와 유학생들에게 청정도량의 역할을 다 할 뿐아니라 프랑스인들에게도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은 언어장애와 홍보부족으로 포교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4월 초파일 연등행사 등으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현지인들에게 연꽃의 향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그랑지를 대학 강지숙〉

종교심의법 개정놓고 정가 갈등

일본 지난 여름 옴진리교 독가스사건으로 제기된 종교법인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간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채 막바지 고비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종교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논의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펼쳐졌다.

국민의 90%가 불교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활동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정치 사회 각방면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특히 지난 1월 5천5백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베지진 사건 때에는 희생자천도재를 지내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사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종전 50주년을 맞아 과거청산활동과 배상문제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오사카/대원사 주지 삼원스님〉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반환운동

인도 불교부흥운동이 확산, 불자가 급증했던 한 해였다. 순수한 종교적 이유로 개종하기도 하고 카스트제도의 범주에서 벗어나려는 신분상승의 목적으로 불교로 개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교부흥운동에 힘입어 인도불교도들은 현재 힌두교도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반환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사회내에서 불교 제자리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5만여명의 스님들이 대탑반환운동을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대규모집회를 갖기도 했다.

인도의 각사찰들은 어린이교육과 문맹자퇴치를 위해 주력하는 등 지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바라나쉬/바라나힌두대학 이형록〉

불교연합창립 40주년 행사 '성황'

독일 올해 독일에서 가장 눈길을 끈 행사는 '불교연합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였다. 독일불교의 태동기가 1940년대라면, 불교연합의 40년 역사가 바로 독일불교 역사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양일간 뮌헨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전통과 현대의 서양불교'를 비롯 8개의 주제강연이 있었다. 특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제아제바라아제' 등의 한국 불교영화가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독일불교연합에는 2만여명의 독일인과 4만여명의 아시아계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하노버에서 달라이 라마(Dalai Lama) 초청법회가 열려 1천여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귈정도'에 관한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경청해 독일에서 그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베를린/베를린 공대 지리학 서정순〉



◇힌두교도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교성지인 부다가야 대탑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인도의 스님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잠양 선센터 개원 티벳불교 활기

영국 지난 여름 티벳재단(The Tibet Foundation) 설립 10주년 기념행사가 크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여러 명의 림포체가 초청되고, 티벳무용, 만다라 제작 과정도 시연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티벳문학에 관한 강연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잠양선센터(Jamyang Meditation Centre) 개원 역시 영국불교의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다. 런던 중심 가에 개원한 이 선센터는 30여개의 방으로 이뤄진 대규모 선센터이다. 영국내 티벳인들은 앞으로 티벳불교를 체계적으로 포교할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불교협회(The Buddhist Society)는 티벳협회(The Tibet Society)와 공동으로 96년도에 달라이 라마를 초청키로 결정하고 세부작업 중이라고 밝혀 영국내 티벳불교의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런던/런던 정치경제대학 이진형〉

'승려추문' 계기 승단보수성 논란

태국 95년은 두차례에 걸친 '승려추문사건'과 '승려증재발급' 등 유난히 큰 시련과 변화를 격은 해였다.

얀뜨란(Phra Yantra) 퓨토(Pavara Phuttho) 스님이 연루된 이 추문사건은 환속, 형사고발로 일단락 지워졌다. 그러나 얀뜨란스님의 경우, 태국승단에서 입지가 점점 커지는 스님과 추종세력을 제거하려는 보수적인 태국 승단의 술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어나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태국불교는 '상가라자'(승왕)를 의장으로 한 '승가원로원'(마하테라)이 지배하고 있다.

한편 태국 승단에서는 가짜 승려를 추방하기 위해 현재 '승려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발급 시점이 승단 개혁을 종용하는 승려의 요구가 확산된 시점과 일치해 태국 승단의 보수성이 또 작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관아바로/진용스님〉

사찰 148곳 연합회구성 포교활발

호주 1970년대 이주민의 대거유입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호주불교는 현재 이슬람교와 함께 가장 발전적인 종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시드니로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울릉공'이라는 곳에 총 2백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대만 불광사 분원인 남천사(南天寺)가 개원됐다. 남천사는 앞으로 다채로운 참선교실을 마련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 호주의 불교포교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호주인은 불교교리보다는 참선, 특히 현실적인 남방권 선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 시드니 일원에는 148개소에 달하는 사찰과 선센터가 '호주불교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한국사찰은 비구, 비구니 각각 4개 사찰로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나 오는 2000년 올림픽을 전후해 도약의 발판을 모색하고 있다. 〈시드니/정법사 기후스님〉

대규모 종교학술세미나 잇달아

미국 95년 한해 동안 미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종교학술세미나가 다양하게 개최됐다.

지난 6월 하와이에서 '불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를 비롯 10월 '동아시아와 불교 전통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UCLA 대학에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는 버스웰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미국종교학회와 불교·기독교학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려, 명실공히 미주 지역의 대규모 학술세미나 붐을 실감케 했다.

재미한국불자의 활동 역시 두드러진 한 해였다. 지난 11월 미주불교신문 창간을 비롯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가 평양을 방문한 바 있고, 윤이상 추모행사를 가졌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원'은 노인, 극빈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운동에 정성을 기울였다. 〈LA/관음사 도안스님〉

정리=남수미·오증욱 기자

보림사서 '월인석보' 제25권 발견

우리나라 최초의 국역 대장경으로 지금까지 24권으로 추정해 온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제25권이 새로 발견됐다. 특히 제25권은 세조5년(1459)에 간행된 초간본이어서 학계가 더욱 주목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소가 지난 15일 공개한 〈월인석보〉의 제25권은 순천대박물관이 지난 2월 전남 장흥군 보림사 사천왕상 몸체속에서 발견한 복장전적(腹藏典籍) 1백89책 가운데 하나다. 〈월인석보〉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석보상절〉과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 등을 저본으로 삼아 세조가 간행한 것으로 지금까지 24권으로 간행됐다는 게 정설이었다.

불교방송·불교TV 볼만한 연말연시 특집프로

'불국토를 연다' '미국속 한국불교' 등 신행프로 푸짐

BBS 송년·신년특집 다채 btn

'마라도 불국토의 꿈' '사랑해요 부처님' 등 볼만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한다. 〈표 참조〉

불교방송은 송년·신년특집으로 13개 프로를 마련했다.

개혁 1년 교계의 한해를 되돌아보는 '불교계 1년을 되돌아본다'와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를 생방송하는 '가는 해 오는 해', 각 분야에서 전법복지에 진력한 불자들을 초대하는 '올해를 빛낸 불자들', 송년특집 '95 가요총결산'을 방송한다.

또 신년특집으로는 원로대덕스님의 새해법문을 듣는 '병자년 새아침 큰스님께 듣는다',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소리로 듣는 연하장', 대덕스님의 법문과 불자들의 발원을 엮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불교언론의 나아갈 길을 좌담으로 풀어가는 '불국토를 연다'와 유망신인들과 함께하는 '96 가요계 샛별들의 행진'을 편성했다.

특히 불교방송은 송년·신년특집으로 미국현지제작 프로그램 '미국속의 한국불교' 시리즈 세편을 방송한다. LA형사반장이며 교포2세인 마기영씨의 도반만들기에 여념없는 신행생활을 소개하는 휴먼다큐 '미국속의 한인경찰'과 교포사회에 불교가 올바로 정착되기를 모색해보는 신년특집좌담 '미국속의 한국불교', 불자연예인초청 교민위안공연 '샌프란시스코교민과 함께'를 방송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불교TV도 송년·신년특집으로 17개 프로를 편성했다.

불교TV는 송년특집프로그램으로 불교계의 1년을 점검해 보는 '95불교계 결산', TV법회 '올해년 부처님을 보았느냐', 영상포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영상포교의 원년', 불교계 1년을 돌아보는 '불교계 10대뉴스'를 방송한다.

신년특집 프로그램으로는 각종단 단체들과 종단지도자들의 96년 계획을 듣는 '새해설계를 듣는다'와 산사스님들의 솔바람 같은 신년메시지 '산중영상편지'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병자년 생활의 기준을 제시할 신년기획대담 '박영재·이기영'을 편성했다.

또 민족의 영산 금강산 정기를 통해 통일을 염원해보는 '금강산 건봉사', 불자연예인 총출동 '우리모두 부처님 됩시다', 세계각국 불자들의 하나된 부처님세상을 향한 해외리포트 '툼비니의 신새벽', 최남단 마라도 불자들의 삶이야기 '불국토의 꿈'이 방영된다.

특히 불교TV는 96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미스코리아 이영현의 진행으로 시명스님과 종립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랑해요 부처님', 청소년포교의 나갈 방향을 점검하고 밝은미래를 제시해보는 '청소년포교의 현실과 전망'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

프로그램	방송일시
올해를 빛낸 불자들	12/25~30 (17:20~18:00)
이웃속에 부처님을 찾읍시다	12/29 (09:05~10:55)
미국속의 한인 경찰	12/31 (16:05~16:40)
방자년 큰스님께 듣는다	1/1 (08:20~09:00)
소리로 듣는 연하장	1/1~2 (11:20~12:00)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1/2 (08:20~09:00)
미국속의 한국불교	1/2 (10:05~10:55)

불교TV

프로그램	방송일시
영상포교원년	12/29 (10:10~11:10)
올해년 부처님 보았느냐	12/31 (10:00~10:50)
신중영상된지	1/1~4 (13:20~13:35)
사랑해요 부처님	1/1 (12:30~13:20)
마라도 불국토의 꿈	1/2 (10:00~11:00)
룸비니의 신새벽	1/2 (12:30~13:20)
청소년포교의 현실과 전망	1/6 (10:10~10:50)



책방 여시아문 ●●● 불교출판 · 법보출판

"연말연시 선물은 정성스럽게 고른 한권의 불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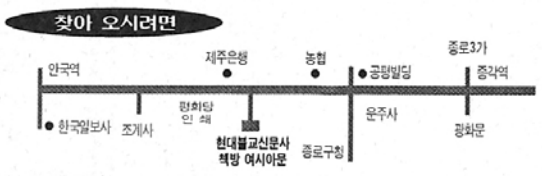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한 해 동안 따뜻이 보살펴 주신 가족·친지·그리고 벗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따로이 '상품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 제대로 된 한권의 불서를 만남으로 인해 충만한 가슴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첫 출간 서적! —한 정신과 의사의 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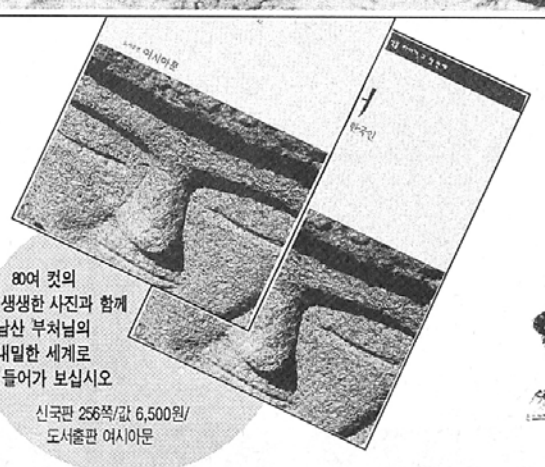
※회원에 한해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찾아 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석불 이야기 그 첫 번째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돌부처
10년 여에 걸친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고집스런 돌부처 사랑, 그 결정체!



80여 컷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남산 부처님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신국판 256쪽/값 6,5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눈뜬 채 코 베이고도 히죽이 웃는 돌부처.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치마폭에 한웅큼씩 싸들고 와 저마다 여기 저기 풀어 놓고 간 생사고락의 모든 이야기 보따리들.
복잡하게 얽힌 세간사의 이야기들을 천 년의 미소로 간직해온 돌부처, 우리들의 얼굴.
때로는 전문가의 안목으로, 때로는 정신과 의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펼쳐 보이는 경주남산 석불이야기.
결국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돌부처의 메시지!



신경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얼추 이런 것들이 이근후 박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석불탐사에 매진하고 있는 사진 직가이자 문화 애호가이다. 1980년도부터는 뜻맞는 동호인들과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결성, 석불 탐사를 통해 민족의 얼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네팔, 그곳'(1982) '불타 4성지'(1984) 등 여러 차례의 사진전도 가진 바 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1〉

長蘆慈覺禪師 坐禪儀 (장로자각선사 좌선의) ②

竊爲坐禪 乃安樂法門
절위좌선 내안락법문
而人多致疾者 蓋不善用心故也
이인다치질자 개불선용심고야
若善得此意則 自然四大輕安 精神爽利
약선득차의즉 자연사대경안 정신상리
正念分明 法味資神 寂然淸樂
정념분명 법미자신 적연청락

가만히 보건대 좌선은 이래서 안락법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병을 얻게되는 것은 모두 다 (애써 무엇을 이루려고) 용심을 잘못한 까닭이다.

만약 이 뜻을 잘 살펴 행한다면 저절로 사대육신이 홀가분하고 편해 정신은 상쾌하고 또렷해지리니 바른생각 분명하면(삿된 생각에 끌리지 않으면) 법의 맛이 갈수록 정신을 살찌게 하여 늘 고요한 가운데 맑디 맑은 즐거움 있으리라.

若已有發明者 可謂如廳得水 似虎嘯山
약기유발명자 가위여룡득수 사호고산
若未有發明者 亦乃因風吹火 用力不多
약미유발명자 역내인풍취화 용력부다
但辨肯心 必不相賺
단변긍심 필불상잠

나온 후에는 일체시에 항시 방편에 의지해 선정의 힘을 간직하되 마치 젖먹이 돌보듯하면 곧 정력을 쉬이 성취하리라

夫禪定一門 最爲急務
부선정일문 최위급무
若不安禪精慮 到處裡 總須茫然
약불안선정려 도차리 총수망연
所以 探珠 宜靜浪 動水取應難
소이 탐주 의정랑 동수취응난
定水澄靜 心珠自現
정수징청 심주자현

무릇 선정일문이 가장 급한 일이니 만약 안선정려가 안되면 불문에 들어와서도 모든게 아득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구슬, 찾으매 의당 풍랑이 고요해야 할 것이니 물결치면 얻기 어렵다.

선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면 마음구슬은 절로 드러난다.

故 圓覺經 云無礙淸淨慧 皆依禪定生
고 원각경 운무애청정혜 개의선정생
法華經 云在於閑處
법화경 운재어한처
修攝其心 安住不動 如須彌山
수섭기심 안주부동 여수미산
是知聖越凡聖 必假靜緣
시지초월범성 필가정연
坐脫立亡 須憑定力
좌탈입망 수빙정력

고로 〈원각경〉에 이르기를 '걸림없는 청정지혜는 다 선정에 의지해 난다' 하며 〈법화경〉은 '한가한 곳에 있어 그 마음 거둬잡아 닦되 안팎 경계에 부동하기를 수미산 같이 하라' 하였다.

이를 알라. 범성을 뛰어넘으려 할 진대 반드시 선정의 힘을 빌릴 것이요.

좌탈입망하려 할 진대 모름지기 선정의 힘에 의할 것이다.

一生取辦 尙恐蹉跎 況乃遷延 將何敵業
일생취변 상공차타 황내천연 장하적업
故 古人云若無定力
고 고인운약무정력
甘伏死門 掩目空歸 宛然流浪
감복사문 엄목공귀 완연유랑
幸諸禪友 三復斯文 自利利他 同成正覺
행제선우 삼복사문 자리이타 동성정각

한생에 다 기울여 취하고 가려도 오히려 때를 놓지고 빗나갈까 두려운데 하물며 녹장부릴 지경이면 장차 무엇으로 업을 대적하랴. 고로 옛사람 이르되 만약 선정력 없으면 죽음의 문앞에 엎드려 눈가리고 속절없이 돌아가매 유랑길 완연하다 하였다. 바라건대 모든 도반은 이 글을 재삼 보고 자리이타하여 함께 정각 이룰지어다. 龍眼

"삿된 생각 물리치면 마음구슬 드러나"

만약 이미 맛을 보았다면 가히 용이 물을 만난 것 같고 맹호가 산중에 깃든 것 같으리라. 만약 아직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또한 바람으로 불을 댕긴 것 같아 힘쓸게 많지 않을지니

다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 나가면 반드시 되물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然而道高魔盛 逆順萬端
연이도고마성 역순만단
但能正念現前 一切不能留碍
단능정념현전 일체불능류애
如楞嚴經 天台止觀 圭峰修證儀
여능엄경 천태지관 규봉수증의
具明魔事 預需不覺者 不可不知也
구명마사 예비불우자 불가부지야

그러나 도 높으면 마군도 치성하여 역·순경계가 만가닥이다.

다만 바른 생각 늘 현저케하면 일체 경계에 능히 걸림이 없을 것이다.

저 〈능엄경〉 천태지관과 규봉수증의에 마군의 장난을 갖추어 밝혀 놓았으니 미리 염려하지 않았다고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니라.

若欲出定 徐徐動身 安詳而起 不得卒暴
약욕출정 서서동신 안상이기 부득졸포
出定之後 一切時中 常依方便 護持定力
출정지후 일체시중 상의방편 호지정력
如護嬰兒 卽定力易成矣
여호영아 즉정력이성의

만약 정에서 나오거든 천천히 몸을 움직여 조심스레 일어나되 급히 하지말라.

수섭기심 안주부동 여수미산
是知聖越凡聖 必假靜緣
시지초월범성 필가정연
坐脫立亡 須憑定力
좌탈입망 수빙정력

고로 〈원각경〉에 이르기를 '걸림없는 청정지혜는 다 선정에 의지해 난다' 하며 〈법화경〉은 '한가한 곳에 있어 그 마음 거둬잡아 닦되 안팎 경계에 부동하기를 수미산 같이 하라' 하였다.

이를 알라. 범성을 뛰어넘으려 할 진대 반드시 선정의 힘을 빌릴 것이요.

좌탈입망하려 할 진대 모름지기 선정의 힘에 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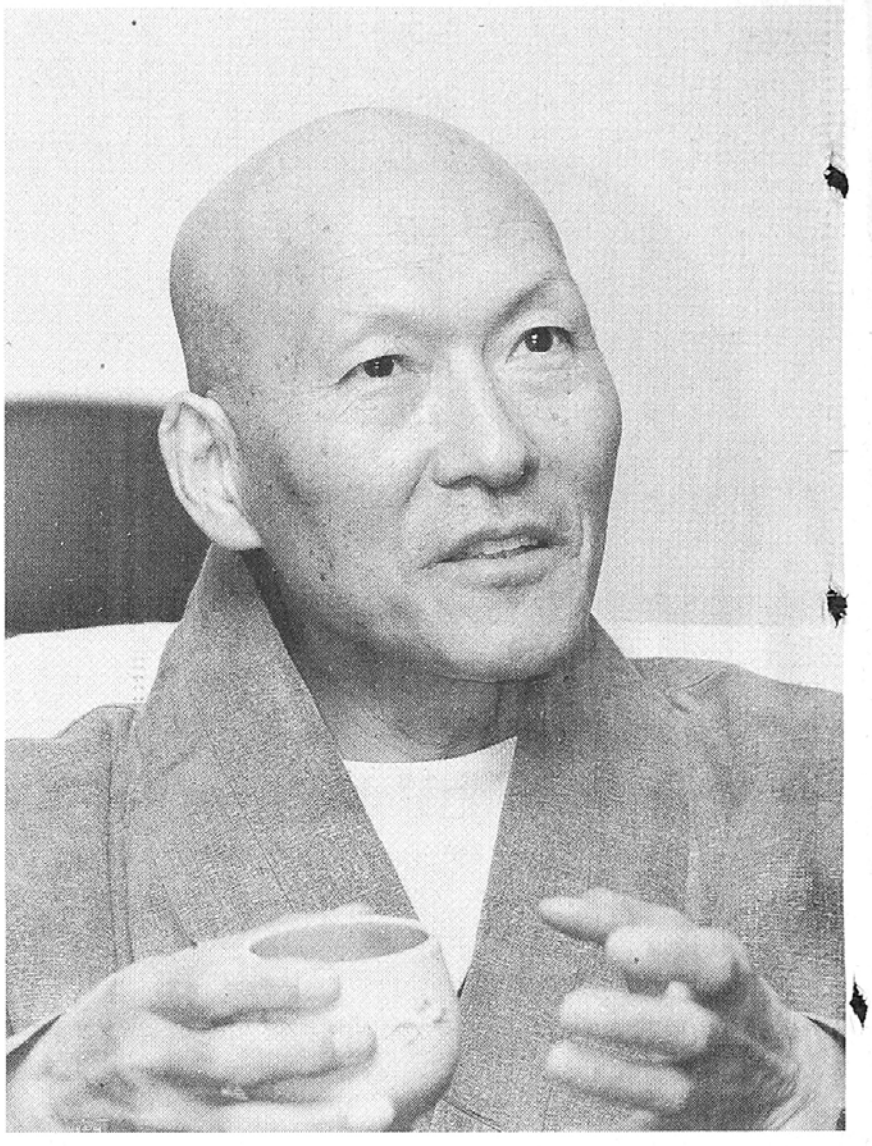
一生取辦 尙恐蹉跎 況乃遷延 將何敵業
일생취변 상공차타 황내천연 장하적업
故 古人云若無定力
고 고인운약무정력
甘伏死門 掩目空歸 宛然流浪
감복사문 엄목공귀 완연유랑
幸諸禪友 三復斯文 自利利他 同成正覺
행제선우 삼복사문 자리이타 동성정각

한생에 다 기울여 취하고 가려도 오히려 때를 놓지고 빗나갈까 두려운데 하물며 녹장부릴 지경이면 장차 무엇으로 업을 대적하랴. 고로 옛사람 이르되 만약 선정력 없으면 죽음의 문앞에 엎드려 눈가리고 속절없이 돌아가매 유랑길 완연하다 하였다. 바라건대 모든 도반은 이 글을 재삼 보고 자리이타하여 함께 정각 이룰지어다. 龍眼

★ 송년지상법석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법정스님 〈송광사〉



약력
- 1935년 生
- 54년 송광사에서 효봉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
-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송광사 조계총림 수련원장 역임
-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회주
- 저서로 〈무소유〉 〈산방한담〉 〈서 있는 사람들〉등 다수.

며칠 전 점심을 하려고 단지를 열었다가 쌀봉지가 하나 달랑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쌀이 단지 속에 가득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마움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또 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쌀의 존재가 새삼 되새겨 지기도 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겁니다. 넘치듯 가득 차 있으면 소중한 것을 모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라는 듯 하면 그 존재의 소중함,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그 존재가 있으므로 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生)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 힘들게 살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밝게 살아가는 이가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유마경〉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넘치듯 가득차 있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조금 모자라는 듯 할때 비로소 감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처지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그릇에, 제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이들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편안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항상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사는 이들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다 보니 자기와는 상관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의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갈 것이고 그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좁쌀로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신도가 노스님을 찾아 뵙고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기 먹고, 술마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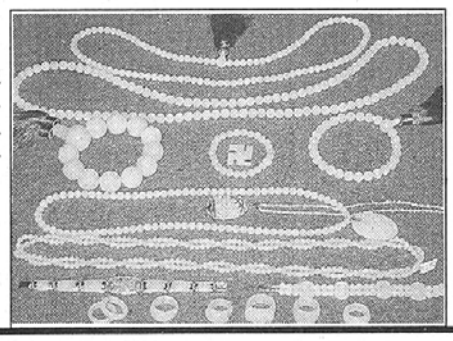
"먹고 마시는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 중에게 와서 물을 일이 아니오. 다만 먹고 마시는 일을 절제하면 당신은 복을 쌓게 될 것인즉 그리 아시오."

노스님의 이 말씀은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호박 덩어리처럼 굴러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스런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박복한 짓을 하면 굴러 들어오던 복도 돌아서 나갑니다. 복이라는 한자의 모양에서도 작고 소박한 것에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옷의 변(衣)에, 한일 자(一), 입구 자(口), 그리고 밭전 자(田), 옷 한 벌에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둘 밭 한때기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이 내게 복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것이 내게, 우리 처지에 꼭 필요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돈이 있다고 해서,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식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내 삶을 소비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과소비 풍조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개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덕을 배워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미덕으로서의 맑은 가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청빈, 거룩한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취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단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런덕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래선지

상하
관세음의 사상과 생애
김 현 도 편저
수행자의 필독서!
대성 관세음보살
일대기
圖書出版 三養
TEL:(02)733-7911~2 FAX:(02)723-2462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釋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선물용으로 적격

* 眞三 옥산가에서만 판대함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0.9% 류울람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온반지 84%, 온몸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중앙일보 春川産 白玉성인병에 卓效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효과
세계서 유일하게 채굴 — 2년 집무리 리글
강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정부기관(공업시험소) 실험필
21세기를 향한
확실한 사업체

(주방가정용)

(주택 및 신업용)
전국 각 시 단위에서 영업을 하실 30대 젊은 영업소장님을 초빙하며 특히 불자님을 우대합니다.
사업취지
1.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고
2. 국민보건 향상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 세포보호, 노화 방지 등)에 일익
3. 건축물 및 산업체 또는 원예 및 양식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관 및 보일러의 파이프에 스케일을 방지하는 크리스탈(M.D.T)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사입니다.
문의처:자화육각수기상사
02) 278-292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돌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물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깃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벼랑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송년지상법석 ★

얽매이지 않아야 자유인"

분수넘치는 욕심 끄달려 불평불만하는 삶 '불행'
한 생각 돌이키면 모든사람이 부처임을 알게돼

청빈이라던가, 거룩한 가난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귀 기울여 들으려는 이도 별로 없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맑은 가난,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맑은 가난, 거룩한 가난이란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입니다. 온갖 집착으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서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가난입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면 아주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맑은 바람이 우리의 심신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며 지나가는 듯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미덕으로서의 가난한 삶,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에게 복이 찾아감은 당연지사입니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텅빈 충만감이 청빈한 삶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생활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가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는 물질에 의해 판단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방은 주부들의 수련장입니다. 사랑이는 안됩니다. 저들은 내게 인욕 정진을 가르치러온 불 보살님입니다. 설령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은 몇 생을 두고 더 갈등하는 인연을 짓게 만드는 과보가 될 뿐입니다. 시덥지 않게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그들 불 보살님이라 여기고 공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욕 정진의 첫걸음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욕만 있을 뿐 자꾸만 사라져가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몇 안되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흔지 않은 요즘 세상에는 가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물론 어머니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어머니들부터 노력을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아닌 단 30분만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할 바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 내가 지녀왔던 따뜻한 가슴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한 집안의 중심인 어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어머니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해 바로 알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차츰 변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따뜻한 가슴의 사람들이 꾸미는 가정,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늘 복되고, 평안이 깃든다는 세상, 극락은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사를 많이 하고, 보시금을 잔뜩 낸다고해서 극락을 약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절에 와 있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부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 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하루니까. 고 3짜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절에 나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 행위일 뿐입니다.

〈채근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화(재앙)는 마음 쓸 일이 많은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또 옛 선사들은 "무사시 귀인이라"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일거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인이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일이 많다고 힘들어 하는 것은 이미 그 일에 얽매여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정성 들여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할수 없이 일을 하자니 일도 많고, 힘이 들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에 따라 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는 권유사항이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날로 정해 지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나 혼자만이라도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둘째는 하루에 단 한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라면 더더욱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지식들과는 달리 어머니들은 항상 그 자리라면 아이들이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란 학생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과서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사 주간지가 아니라 좋은 책으로 독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세째로는 보름에 한끼씩은 단식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불과 한끼지만 스스로 마음을 내 단식을 하면서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굶주리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만 지구 저편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배를 주리고 있고, 심지어는 아사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가까이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요즘 들어서는 홍수로 굶주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지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낮추시라는 겁니다. 외국을 나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건 없건, 장소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는 데에도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는 지금까지 지녀왔던 것을 놓아야할 그런 때가 옵니다. 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이때만큼은 살아있는 동안의 그 숱한 애착은 물론 육신까지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내 생명을 잉태시켜준 어머니의 몸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내 생명을 잉태시켜준 어머니의 몸을 버렸습니다. 또 살면서도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해서는 이 몸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버린다는 행위는 새것을 얻기 위한 몸짓이라는 사실, 보다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설령 내 잘못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몇 생을 두고 갈등하는 인연을 짓는 과보가 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52

양 형 진

엔트로피와 생명

외부에너지 작용될때 생명체 진화 가능
일체사물은 끝없는 '연기의 그물'로 연결

엔트로피란 물리학의 열역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학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엔트로피란 도대체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진화나 생명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계의 엔트로피는 그 계에 유입된 열량을 온도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사람들은 이 엔트로피라는 양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엔트로피는 정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보 이론에 의하면 엔트로피란 부의 정보 혹은 마이너스 정보이다. 즉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크게 되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엔트로피는 적은 것이 된다. 엔트로피는 부의 정보이므로 무지의 정도이기도 하며, 또한 혼란의 정도를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든가 그 계가 질서정연하지 않다면 엔트로피는 커지게 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법칙의 내용은 닫힌 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엔트로피의 정보적인 측면과 연관시켜 간단한 예에 적용시켜 보자. 가령 마당에 낙엽이 흩어져 있는 경우와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경우를 생각하자. 나뭇잎의 위치에 대한 정보량은 나뭇잎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경우가 흩어져 있는 경우보다 크다. 이와는 반대로 엔트로피는 부의 정보이므로, 나뭇잎이 흩어져 있는 경우의 엔트로피는 나뭇잎이 모여 있는 경우보다 크다.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닫힌 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낙엽을 한 군데로 쓸어 모으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 한 (이는 외부와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계를 닫힌 계라고 부른다), 엔트로피가 큰 상태에 해당되는 흩어져 있는 낙엽이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인 한 군데로 모이는 일이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생명 현상과 연관시켜 보자. 생명체란 대단히 질서 정연한 조직이어서 고도의 정보를 지닌 계이며 따라서 엔트로피가 아주 작은 계이다(이와는 달리 생명체가 죽고 나서 신체의 구성 요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의 진화라는 과정이 과연 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해 진다. 생명체가 아주 엔트로피가 작은 계라면, 덩치가 큰 생물은 덩치가 작은 생물보다 엔트로피가 작은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시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의 진화 과정은 대체적으로 생물체의 몸집이 커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진화의 과정은 엔트로피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열역학 제2법칙과 양립할 수 있는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진화의 과정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어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하나의 생명체만을 관찰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이다. 어린 아이나 진화하는 생명체는 결코 닫힌 계가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는 열린 계이다. 영양분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생명체는 결코 닫힌 계가 아니다. (비로 쓸어 모으는 것과 같은) 어떤 외부 작용에 의하여 한 군데에 모여 있는 낙엽과 같이, 생명체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계이다. 그럼에도 생명체를 닫힌 계라고 생각한다면, 진화가 불가능하다거나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일면적인 고찰만으로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생명을 비롯한 일체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연관 다시 말하면 끝없는 연기의 망 안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연기의 고리를 다 끊어 놓고 하나의 개체만을 드려다 본다면, 그 안에서 생명의 전존재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일체 법계의 모든 사물이 그러하다. 일체의 사물이 끝없는 연기의 그물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를 중중무진법계연기라고 한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 · 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자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면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신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변(無碍辯)을 기록 · 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자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승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장이 걷히고 한없는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스님께서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

고은 불교 대하소설



58

불덩어리 솟아 오르다

그것은 어떤 아름다움도 아닌 상태였다. 아니 아름다움을 철저히 거절한 그런 아름다움의 부정으로 된 상태였다.

어떤 괴 쌀아먹던 아귀가 잠깐 불이와 합두의 한 덩어리 불 타는 광경을 보고 "이 세상 아귀계에서는 없는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하였다.

다른 아귀들은 이같은 불이와 합두의 처절한 애욕에 대해서 멸시를 서슴치 않는 것이었다.

"입에 집어넣을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놈의 음양(陰陽)인가!"라고 욕설을 퍼부어 대기까지 하였다. 일러 열만(熱懣)이었다. 남으로부터 심한 멸시를 받는 그런 지경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아귀에게 근본적으로 잠겨있는 생명의 기운이 솟아올라 그들의 아귀 고통까지 불태우는 애욕이라면 그 애욕이야말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 아닐 것인가.

그들에게는 일체의 말이 없었다. 일체의 주고 받는 수작도 없었다. 오로지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것은 진리가 그런 것처럼 불이(不二)의 경지일 수 밖에 없는 데까지 가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준수했던 불이, 그렇게도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게 아름다웠던 합두였으나 이제 가장 흉한 해골에 입혀진 껍질 형상의 두 아귀일 따름인데 이 추악한 형상으로서의 눈부신 애욕의 불길이 어디서 생겨 나서 이토록 불타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비장한 노릇이겠는가.

칼칼하거나 어둑어둑하거나 침울한 아귀계의 여러 공간들이 그들이 만든 불덩어리 불빛으로 서로의 몰골에 빛을 받아 더욱 적나라한 바였다.

어느 늙다리 아귀가 힘없이 외쳤다.

"어서 빨리 타버려라. 재가 되어라. 그 재라도 함아먹고 싶구나."

어느 아귀가 그 말을 막았다.

"저런 애욕의 재를 먹으면 장차 그 재의 업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오?"

"애욕의 괴로움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보다 더 무섭다는 말인가?"

"무섭다마다요. 영감님! 영감님은 이곳 아귀계 업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세상에 태어날 때가 가까워 오는데… 하필이면 저런 애욕에 눈이 멀다니… 애욕의 재를 먹고 어쩔테요?"

"먹어야겠다!"

그 늙다리 아귀가 불이와 합두가 이룬 불덩어리 밑으로 깔리는 뜨거운 재에 성큼 나아가서 그 재를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잘도 핥아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활활 타고 있는 불덩어리 속에서 "합두!" "합두!"라는 소리와 "아 불이!" "불이!"라는 소리가 서로 엉켜서 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마적(魔的)이기까지 한 일치의 환희는 어쩌면 불교의 다른 한쪽에서 심화된 밀교의 그 태양의 비밀과도 같은 순백(純白)의 괴를 토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귀계의 몸을 받은 이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늙어버린 상태였다. 피골이 상접한 것 자체가 굶주림과 함께 노쇠도 가세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의 환희는 마치 지도론(智度論)에서 말하는 환년약(還年藥)이라도 먹은 것 같았다. "…이와 같은 늙은 몸으로 도리어 소년의 몸이 되었으니 환년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그것이었다.

다른 아귀들이 그들에게 한 참나도 멈추지 않는 아귀의 괴로움을 문득 잊어버리게 하는 그윽한 학각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한 덩어리 불빛덩어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불빛덩어리는 지하의 아귀계에서 지층을 뚫고 솟아올라 점점 수륜(水輪) 금륜(金輪) 위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옥 최상층의 아귀계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 불이와 합두는 완전히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그 생명을 기름으로 삼아 그 불타는 힘에 의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을 사바세계의 밥이라고 말할 까닭도 없다. 그저 어둠 속의 상공으로 그 불빛덩어리는 찬란한 불빛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 광경은 거의 없었다.

어떤 도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신으로부터 불빛덩어리가 마치 유성(流星)처럼 떨어져나가 하늘 높이 사라진 일을 목격한 일이 사바세계 인간계에서는 있었거니와 이런 아귀계에서는 없는 일이었다.

> 그들은 不二門의 진리를 보인다음 다시 방편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둘로 갈라섰다 하지만 둘은 언제나 동시에 한 생각을 내고 동시에 한 생각을 없애는 하나로서의 둘일 따름이었다. 애욕의 최고 경지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아귀들은 다시 그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굶주려야 했고 목이 타야하였다. 그런 아귀중생을 감시하는 한 늙어빠진 귀신이 혼자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일이 단 한번 있어서 그것으로 억겁의 아귀업을 받는다 합지언정 나처럼 이런 아귀계에서 세세생생을 이어가는 원이 없으리."

어느덧 그 귀신의 황한 무정(無情)의 눈에서 한번도 비쳐본 적이 없는 눈물이 아롱지는 것이었다.

"불이와 합두 두 아귀들이겠지! 아니 이제는 둘이 아니겠지. 굳이 그 이름을 부르자면 '불이합덕'이라고 해야겠지! 가상한 노릇이야."

아귀계는 식토(食土)라는 아귀도 있다. 아무리 그 아귀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 신세라 하더라도 그의 머리는 지상에서 하늘 속에 닿을 때도 있다. 몸 길이가 무려 12리(里)나 되게 길기 때문이다.

이 어이없는 키다리는 누군가가, 어느 짐승인가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 토해낸 것만을 뒤져먹게 되었으므로 그런 구토물 찾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늘 굶주려서 키는 놀랍게 크지만 몸매는 마치 철사 몇개가 고여있는 것 같은 비참한 말라깽이인 것이다.

지난 생에 혼자만 재산을 독점하거나 혼자만 맛있는 것을 독차지하거나 한 보답이

몸안은 항상 뜨거운 불길로 가득차서 내장과 뼈를 태우는 것을 다른 아귀가 밖에서도 내다볼 수 있다. 재물에 넋을 팔고 그것을 긁어모은 업보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재물이라도 그 정도가 미약한 쪽에는 '희망(希望)'아귀가 되어 불단(佛壇)이나 경건한 재단에 차려놓은 것만 슬쩍 훔쳐먹을 수 있을 따름이다.

바로 이 '희망아귀' 중의 한 아귀가 말하였다.

"이제 불이는 만났을 수 없겠지. 그 멋진 해골바가지 아귀!"

그러자 다른 아귀가 말을 맞받았다.

"불이도 불이지만 나는 합두를 아주 좋아했어…. 나는 그가 살던 저 사바세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섬에서도 살았대…. 금륜(金輪) 위의 드넓은 바다에는 너무 큰 섬만 떠 있어서 그것은 섬이라고 할 수 없지…. 아무튼 나는 합두 곁에 있을 때는 배고픈 고통이 좀 덜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이상한 향기도 맡을 수 있었는데…."

그러자 '변귀기귀(變鬼忌鬼)'의 색다른 아귀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이 지옥계의 한 가장자리인 아귀계가 갑자기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진 축제의 장소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녕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그 산해진미 앞에 참석한 아귀들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처지로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떤 아귀가 일어서더니 붉은 기둥에 대고 제 머리를 꽝! 부딪쳐 머리 깨진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뇌수(腦髓)를 찍어 먹는 것이었다.

그 징그러운 광경은 다른 아귀들에게도 이어졌다.

"이것이 내 음식일 따름!"

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뇌수만 게워 먹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그들 앞에 차려진 성찬도 젓더미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 다음으로 나타난 아귀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덤 속의 썩은 시체만 파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파먹어도 늘 부족하였다.

사실인즉 불이와 합두가 바로 이 시체아귀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합두에게서 시체의 악취가 나고 있다가 그 악취가 차츰 변해서 아주 좋은 향기로 바뀐 것이었다.

자금 불이합덕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들은 불빛덩어리가 다한 뒤에는 다시 하나도부터 둘로 나뉘어졌다.

불이문(不二門)의 진리를 보인 다음 다시 방편으로 하여금 지난 날의 둘로 갈라선 것이다. 하지만 둘은 언제나 동시에 한 생각을 내고 동시에 한 생각을 없애는 하나로서의 둘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합두가 부를때 불이는 "합두!"라고 부르는 것이어서 그것은 동시발음이 되었다. 애욕의 최고경지가 아닐 수 없다.



아귀고통까지 불태우는 애욕이야말로 새로운 수행의 시작 아닐까

그림·조향숙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⑦ 722-7755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6년 1월 11일(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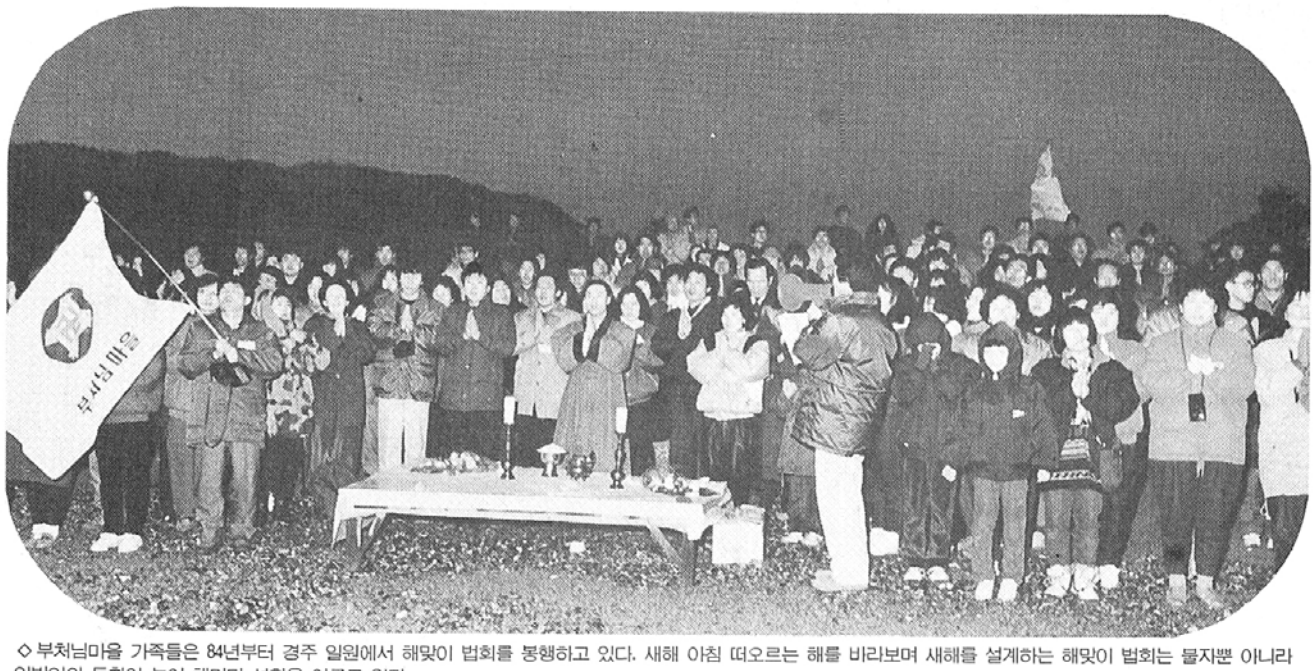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 부처님마을 가족들은 84년부터 경주 일원에서 해맞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해맞이 법회는 물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동참이 늘어 해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석굴암·칠불암·골굴암·감은사지·대왕암일대서

새해 소망 발원 '해맞이 법회'

부처님 마을 84년 처음실시
사찰·신행단체별 행사 주관

해맞이법회를 통해 새해아침을 맞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해맞이 법회는 신년 첫날 아침,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의 소망을 발원하는 법회로 경주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경주는 해마다 세모의 마지막날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들은 지역 사찰에서 기도와 정진으로 한해의 마지막밤을 보낸다.

이어 새날을 알리는 석굴암 통일대종의 타종식을 시작으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예불과 정근을 한다. 새벽 5시경,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 독경과 정근으로 원을 세운다.

해맞이 법회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는 경주남산의 석굴암을 비롯 칠불암, 골굴암등의 사찰과 감은사지, 대왕암일대 바닷가.

해맞이 법회는 경주 부처님마을(촌장 도문스님)이 84년부터 처음 실시했다. 전국의 부처님마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만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법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 지금은 사찰별, 신행단체별로 법회를 주관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마을은 금년에도 석굴암 타종과 함께 칠불암에서 해맞이 법회를 봉행한다. 삼귀의, 반야심경독송, 발원문낭독,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는 부처님마을 법회는 3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안강 향림사(주지 법명)도 31일부터 새해 아침까지 골굴암과 대왕암에서 법회를 갖는다. 향림사가 주관하는 법회에는 이미 1백여명이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6년 전부터 신년 해맞이법회를 주관하고있는 법명스님은 "새날을 알리는 석굴암 타종소리는 일반적인 아침 종소리와는 달리 심금을 울린다"며 "항상 보는 태양이지만 신년 첫날의 해를 바라보며 새해의 구상과 발원은 뜻깊은 인연으로 많은 감응을 받는다"고 해맞이법회를 소개한다.

서울에서도 소림정사(주지 지형)가 석굴암 해맞이법회에 5년째 참석하고 있다. 소림정사의 해맞이법회는 서울지역불자들이 불교성지 경주남산에서 새해 발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데 돌아오는길에 감포에서 방생법회도 갖는다.

또한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은 오는 31일 상원사 월정사를 참배하고 강릉 경포대에서 해맞이와 함께 '통일기원제'를 봉행한다. 두레문화기행의 신년기원제는 6번째로 돌아오는 길에 신복사지, 굴산사지등 사지도 참배한다.

이밖에 설악산 봉정암, 상원사 중대, 여천 향일암등 기도처에도 새해아침에는 신년소망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부처님마을(0561-43-3285), 향림사(0561-761-2593), 석굴암(0561-746-9933), 골굴암(0561-749-1272), 두레 문화기행(02-712-5812), 소림정사(02-511-6210)

이준엽 기자

불자학생수 해마다 감소

김형중 교법사, 고입선발 입학원서 종교 분포조사

불교(17%→15%) 천주교(5%→19.2%) 개신교(28%→40.6%). 불자 학생수가 줄고 있다. 반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믿는 학생수는 급증하고 있어 내년 '불교 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청소년포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가 명성여중등 서울지역 8개여교 3백50여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89학년도와 96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입학원서에 나타난 종교 분포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89년 당시 불교에 크게 뒤졌던 천주교 학생수가 오히려 불교를 앞지르고, 개신교의 경우 학생의 절반가량을 확보할만큼 급증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만 하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표본조사 결과 역시 위 결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94, 95, 96년도 각 1백50, 2백, 3백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조사를 보면 불교(12%→12%→10.3%) 천주교(15%→14%→19.2%) 개신교(39%→42%→40.6%)로 불자 학생수는 답보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천주교와 개신교의 경우는 2년새 각각 4.2%와 1.6%가 증가했다.

이는 개신교, 천주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흥겹고 편안하게 이끌고 있는데 반해 불교의 경우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부족과 소극적 포교활동등 여러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조사대상이 여학생에 국한됐다는 점과 특정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표본수가 작다는 점등 여러가지 한계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자 학생수가 확실히 줄고 있다는 종립학교와 일반학교 교사들의 지적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성냄의 장 *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이 향 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완전강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불교사상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유식철학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특집—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⑥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경주는 지구촌 문화유산 "보존은 우리몫"

서명자 명단

83,330명 서명 (1995년 12월 19일 현재)

한국외국어대

도소희 오주현 김소연 박지혜 주수연 하선영 김도선 홍순남 최선우 우문식 이철승 최형식 김형권 장진원 장창민 최준경 김세열 신용집 방희영 공자영 최재훈 윤주만 반상후 유장준 윤용수 최남돈 김용기 김종훈 우 근 한봉율 우덕룡 설국제 노동선 김정위 예창해 박석구 손재영 정경원 류재화 백대흠홍오명근 엄병필 유춘상 조성일 이정국 이재명 윤경묵 양승윤 김경수 최춘희 최창복 이승덕 맹주억 김현택 강호철 이홍초 김진수 박선영 이상용 김우조 박천배 최성유 최정연 김혜영 김영미 박종영 이희상 김봉수 조재영 조희찬 박경희 윤희정 정창익 박영복 정향숙 김남길 조주복 권용수 손용미 곽순식 최창요 최홍규 최미옥 김주희 김경로 조원식 김경선 이연옥 허영화 김미연 김광순 김영호 정박문 한상경 신충식 최병삼 박종은 최미영 윤병호 황진선 김경선 조성은 임 정 김은영 권윤정 김연숙 임승빈 김은지 김은주 조수경 윤정아 정영수 권지영 옥신지 장수영 김정희 김정수 현법매부 정원구 이석진 유은현 곽순례 박 칠 한형곤 김창문 이윤배 조일흥 장연림 김애실 이두선 홍의갑 금상문 송윤엽 한덕규 최영수 강덕수 강석영 박희영 기연수 조이환 공일주 노명환 박창호 표광희 김정기 이주영 강현희 강정희 노미현 정중삼 장은정 정영윤 김상열 김중환 이은진 장지연 이상운 이춘호 윤지영 황성재 박정희 이정훈 임영상 임필용 이인영 홍성균 고동욱 오정원 심준보 이종경 이영수 조일연 박순애 김준연 김정덕 박혜영 황순용 심남훈 이용규 강천석 조진호 조은숙 박준혁 안병주 임종호 구기열 최정숙 조은정 전경미 이효순 이정언 김경탁 이숙경 박주옥 안준성 윤진영 박성철 김한진 이영갑 김준연 황성효 조세영 박순영 김정민 최현옥 박선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⑥

고속철 통과 천년古都 숨결 끊는 죄업

박상순 송원희 이종숙 김은희 이현순 김홍수 김수현 류정현 유영숙 이수현 장선정 김보라 이동섭 이정민 정수영 장은미 정호운 서신자 이현미 김수운 박성현 양은주 이성희 박윤경 홍동철 성금희 박동호 정은자 박상욱 김지혜 박유성 장한영 박희천 문영기 황혜진 이성진 강명아 김연혜 송근희 차은영 조은희 김은순 강성욱 홍미란 홍석용 김순예 김은애 김양순 문의자 한승진 최순교 장찬호 이완종 박현일 유영수 강용환 이종희 최영자 최영숙 노정하 어금연 정연태 채종민 강승미 [illegible]은정 윤준오 홍경미 홍선미 김광오 홍현분 서정숙 [illegible]만기 강판숙 강미선 이병희 조은화 조은영 조형철 [illegible]순희 강민석 강문홍 김수향 복창우 권유리 윤성호 김혜숙 한 현 안영진 김선형 오준경 이수영 심보영 오정민 김민혜 김정현 김종식 한창훈 이현주 박정은 장은주 조장래 이기탁 김옥기 김민주 김옥희 최금순 김영자 황인숙 윤정아 맹현숙 박혜영 송명숙 조제압 오세후 안영진 곽미나 이용후 이성희 김무봉 김창숙 조제도 조현주 임미영 임화숙 김현배 김은영 박주희 변혜경 구윤희 민수기 김상희 김경희 박경아 김은희 김규남 류선용 박상현 박현식 안성호 박종복 변해경 안정희 유병목 이국환 임종순 염연식 우성희 윤관현 이상명 이자형 최희정 박윤희 이윤선 한미숙 여희압 이정아 윤두현 구연희 한준남 김태욱 박동찬 이승희 이종순 이정애 김국일 김진연 연승준 조치원 유관석 권희교 김진선 정순복 이근모 안천애 정혜진 박종국 이숙호 김윤영 최정순 정여영 안상국 이은희 박지연 박지은 정단국 유종열 김영남 백영주 이규용 박희수 이준호 안진국 권순애 김남희 박인수 천병근 임종은 박원진 김상혁 신상수 김치현 허강희 변효균 조원석 윤종화 김영선 김진석 이규형 김태균 김기용 장영은 박용래 이중구 이유진 하동빈 박정희 조유동 하동진 이선영 신계숙 김민정 조혁동 김나리 이규삼 박순옥 박희옥 이숙자 이춘식 박경희 김희선 박영숙 김혜선 이정애 장옥이 김복희 김영실 윤정숙 김미자 오영미 차혜미 심애라 이미선 황순애 이구현 전하연 김진호 윤혜정 심수연 김 철 현선희 홍호성 최지영 김영한 장정선 송경남 이영진 장현수 박정재 박칠희 김종선 최경식 이규석 정재성 신효정 정문성 김양식 이병화 조용덕 이정민 최민혁 이주석 권중훈 이승남 김영규 이진용 조경태 최희승 김종기 강동인 정현정 윤우섭 [illegible]은미 주병문 최미영 홍순철 김민석 박경선 백은실 박상민 이상준 박희창 임병선 권혁겸 최성호 [illegible]정환 이현종 이국일 김진연 연승준 조치원 유관석 권희교 김진선 정순복 이근모 안천애 정혜진 박종국 이숙호 김윤영 최정순 정여영 안상국 이은희 박지연 박지은 정단국 유종열 김영남 백영주 이규용 박희수 이준호 안진국 권순애 김남희 박인수 천병근 임종은 박원진 김상혁 신상수 김치현 허강희 변효균 조원석 윤종화 김영선 김진석 이규형 김태균 김기용 장영은 박용래 이중구 이유진 하동빈 박정희 조유동 하동진 이선영 신계숙 김민정 조혁동 김나리 이규삼 박순옥 박희옥 이숙자 이춘식 박경희 김희선 박영숙 김혜선 이정애 장옥이 김복희 김영실 윤정숙 김미자 오영미 차혜미 심애라 이미선 황순애 이구현 전하연 김진호 윤혜정 심수경 김순영 공희경 박정미 오유니 홍자경 김경희 강은경 권지영 김정숙 박영석 김경순 김정태 김정란 이제순 정진숙 성정현 채수인 박경재 김희준 권정아 백은영 이현미 조은성 최문선 염문희 배혜열 김규호 김방준 홍정화 홍관표 홍순만 전학남 최혜진 김순희 이경례 이재경 이미숙 장세동 이상덕 김기봉 박정희 서정석 백선경 이경애 이미성 박정은 신상규 정은주 이세정 이수현 이은주 오 혁 김경숙 홍순덕 김재덕 김수용 최민숙 백미나 정동규 김은실 김미선 김정숙 김종식 한창훈 김은희 김지은 이경탈 박근호 이기복 강희원 원제연 문경환 이상학 유병아 남원호 노지영 박현정 원제연 문경환 이상학 주은희 이지영 김정애 환 윤 민옥화 박미희 최형경 임성우 박동권 박병하 황유진 김지선 은영노 김정복 한창준 박정희 우준섭 백선경 이경례 이미성 김상덕 김진근 정은화 안현규 이창익 이수현 이은주 오 혁 김경숙 홍순덕 김재덕 김수용 최민숙 백미나 정동규 김은실 김미선 김정숙 김종식 한창훈 김은희 김지은 이경탈 박근호 이기복 강희원 원제연 문경환 이상학 김진숙 이경탈 박근호 이기복 김옥기 김민주 김옥희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⑥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경주는 살아있는 문화박물관 "훼손막자"

최혜응 김대영 소진일 조인아 이기중 송신원 장인준
이기복 이현철 양승길 장라윤 이권재 박광희 강성구
강홍은 박종권 김산용 윤병화 홍순용 전혜은 김진희
김은미 임선희 장진영 장진영 이연실 신규성 감승용
홍순배 이광호 장명환 김종화 최영철 최재봉 임송래
김영정 최대근 서원균 박강하 김현승 김경애 황미란
정인순 이영희 허은경 장현주 진선영 서화원 심희정
박현주 정금례 곽영숙 박정애 권미라 서정화 엄옥순
김영옥 허숙영 지일혜 채민조 지정숙 김지영 이영기
장영분 김휘영 박순덕 조은조 홍유정 김현진 유경훈
강해란 김영원 김홍기 임대성 오경진 김상규 황용연
은연실 강영주 표정화 김진숙 김홍순 나경화 신세희
양민린 홍복희 주영숙 은숙자 임성봉 최숙화 류기화
김선우 한선영 장은숙 김혜정 박정미 임준환 권은영
장태화 김용기 진지한 성준경 김인화 정현자 정미라
심동원 김휘영 김숙자 조은조 홍유정 김인화 최영남 양수연
황기화 김유미 민수경 전은진 장용훈 이광렬 우세종
한현주 박세현 송대의 조성우 나 석 신용환 방동은
양기형 우광성 이재중 양재민 김병수 박현수 이수만
윤영한 윤성조 김규학 박성배 박연원 이대수 배병기
김명기 조용진 전현만 유명석 박성모 엄용호 강구선
임창빈 진용덕 이현미 추진하 김지선 여태준 조형철
유세희 홍지일 김 진 오종우 정수연 정경희 윤성호
김재형 이재영 황정진 박선정 김현수 두용철 자병주
최세은 김희정 한혜은 장찬구 박상현 고욱곤 박정현
최석우 이정훈 최유순 고은주 하근영 조 성 김병선
정석용 김윤은 임병희 이주은 안지은 임미진 이명희
박남석 김영경 김정완 김영주 신경주 이종철 김하진
유희경 김승옥 양희성 가경호 김석훈 김종필 안순덕
윤현순 윤여성 윤지영 이은영 김재순 오영수
김경곤 박용선 김상봉 구권희 유경여 신영규 김종인
김동원 박진우 유창한 송경섭 이진우 김 육 박은숙
양미정 최준원 박미영 안수미 이현주 오미영 유승희
송양호 최잔규 정정균 서원규 임성현 이현정 손지현
김은하 김옥선 박진자 최혜정 박준희 유현미 이종현
이은숙 박명화 조미옥 김명윤 라은진 이효재 김태훈
김형석 조배성 정용균 김중기 이창현 김용철 신운수
김진락 김태옥 김희수 송재인 김소영 김선녀 이광만
우성대 진 혁 김한도 하상진 이준기 최현녀 홍후직
이연화 이금석 오순녀 박태홍 홍기연 홍성기 홍성희
김은주 강승아 김남순 오경택 전상민 이경민 유민수
권승범 박지은 권은진 이현경 이수진 최연주 육수미
서수민 김은아 임성아 한길연 신정화 박수영 임경아
정일권 두용현 이호철 이진옥 장인옥 김혜진 정주희
한미연 윤영옥 박상화 이미자 이정숙 조혼철 이종혁
나성원 곽철민 장지연 허태용 류진일 이승철 박진수
유성규 김은경 정덕순 윤민영 김용민 김경헌 문현선
유병철 강승심 유미선 박연희 나수진 정지선 허갑진
고영경 김강희 김선숙 나승훈 송주현 윤광식 나우철
조현덕 이광열 오동명 홍은실 김경예 김정훈 홍창수
김경곤 김수형 김규연 박은희 윤정식 최경숙 김소영
채은주 김동남 이규배 윤치원 송덕룡 왕미영 고관형
신주현 김태용 최요순 최경석 박귀종 김동문 김은이
이춘식 여인빈 장영익 윤의상 이병호 김경은 이민주
이경화 최선희 김경곤 장진우 김석주 김주홍 권종운
박재희

경기대

김무상 형정훈 김상대 양형승 양재호
유상진 설정근 서상호 윤경선 조미옥
곽대욱 정채근 최은희 한석우 김승일 김미양 정상철
박동훈 박정란 김인호 이영주 전영준 권두리 김숙희
박정애 방준현 오승렬 이영화 한봉석 심현정 김희선
정경화 박영민 이영기 유영길 장기빈 신정미 이진수
이동만 김기현 한진숙 백은영 이병권 이은숙 홍성영
김창빈 진용덕 이현미 추진하 김지선 여태준 조형철
유세희 홍지일 김 진 오종우 정수연 정경희 윤성호
김재형 이재영 황정진 박선정 김현수 두용철 자병주
최세은 김희정 한혜은 장찬구 박상현 고욱곤 박정현
최석우 이정훈 최유순 고은주 하근영 조 성 김병선
정석용 김윤은 임병희 이주은 안지은 임미진 이명희
박남석 김영경 김정완 김영주 신경주 이종철 김하진
유희경 김승옥 양희성 가경호 김석훈 김종필 안순덕
윤현순 윤여성 윤지영 이은영 김재순 오영수
김경곤 박용선 김상봉 구권희 유경여 신영규 김종인
김동원 박진우 유창한 송경섭 이진우 김 육 박은숙
양미정 최준원 박미영 안수미 이현주 오미영 유승희
송양호 최잔규 정정균 서원규 임성현 이현정 손지현
김은하 김옥선 박진자 최혜정 박준희 유현미 이종현
이은숙 박명화 조미옥 김명윤 라은진 이효재 김태훈
김형석 조배성 정용균 김중기 이창현 김용철 신운수
김진락 김태옥 김희수 송재인 김소영 김선녀 이광만
우성대 진 혁 김한도 하상진 이준기 최현녀 홍후직
이연화 이금석 오순녀 박태홍 홍기연 홍성기 홍성희
김은주 강승아 김남순 오경택 전상민 이경민 유민수
권승범 박지은 권은진 이현경 이수진 최연주 육수미
서수민 김은아 임성아 한길연 신정화 박수영 임경아
정일권 두용현 이호철 이진옥 장인옥 김혜진 정주희
한미연 윤영옥 박상화 이미자 이정숙 조혼철 이종혁
나성원 곽철민 장지연 허태용 류진일 이승철 박진수
유성규 김은경 정덕순 윤민영 김용민 김경헌 문현선
유병철 강승심 유미선 박연희 나수진 정지선 허갑진
고영경 김강희 김선숙 나승훈 송주현 윤광식 나우철
조현덕 이광열 오동명 홍은실 김경예 김정훈 홍창수
김경곤 김수형 김규연 박은희 윤정식 최경숙 김소영
채은주 김동남 이규배 윤치원 송덕룡 왕미영 고관형
신주현 김태용 최요순 최경석 박귀종 김동문 김은이
이춘식 여인빈 장영익 윤의상 이병호 김경은 이민주
이경화 최선희 김경곤 장진우 김석주 김주홍 권종운
박재희

장영진 이상기 신기영 서보경 이충호 김민선 김민자
윤찬수 김연진 김재희 이승구 한희선 한상수 김광남
김학성 우완수 지철호 전 숙 김형진 이우선 박지숙
박지원 김미애 장동선 전세영 홍은정 김연주 김영숙
이미향 윤기용 조병문 문현철 양혜선 박자애 안지연
차내은 류수영 문민경 박은아 김연옥 김미아 정유선
이정은 장경옥 공창식 이용권 이유진 염순례 정대섭
전해숙 안승원 박석정 장은주 권상택 정명권 함영희
박정애 박기복 장양숙 조성운 이영수 김경미 이재순
정복경 이향우 엄광희 석용실 윤영미 장두석 김정숙
박형익 박신정 박승수 임영숙 박소미 박정준 이강희
김은희 김석태 문림기 이태우 최창하 배승봉 고영배
이장호 이재현 서현석 이후진 변 석 오경환 조장빈
임광훈 김성태 오광조 박광영 이성환 장천익 원봉연
전은일 성대계 임정수 이기원 성영식 전대훈 한유호
이종성 김학수 유철목 김광호 양장권 윤성신 이 정
이창훈 최규영 이선광 신한남 성기철 최준선

한국통신 충북불교회

이은혜 정은경 임헌기
선수예 장진숙 김미용
김명숙 노광료 박노준 김영한 조경숙 박현미 유준철
이화진 김현홍 한명희 이규복 이 철 류효진 윤광희
이옥주 박창배 곽동현 고명종 김혜영 황인주 강희탁
조성만 이재갑 권노홍 우종관 박정수 이상구 이장분
송미숙 김현정 박인숙 이장란 나현숙 김제덕 김영순
윤규진 육광민 이종호 김봉규 신선애 박안옥 홍석영
백종석 김소연 김명희 이상용 김기서 김기선 박근용
민혁기 장덕수 김영규 유남실 박영석 이대희 오명옥
김순옥 하선자 조은성 정유순 배경이 오영애 김잔순
이은영 김인자 윤장숙 장명숙 최병희 김경미 황자숙
홍이표 박상희 김점숙 김영숙 이종남 이의경 김정숙
김호숙 이창미 채정미 강경자 정지열 최복란 이미영
이태원 김연희 김종임 민영자 송영숙 최은정 강은숙
정시용 배전비 홍명선 육춘임 김제희 이은우 이유화
안복희 박상철 고진호 안기웅 윤주연 오종순 이현옥
노은옥 김명자 박병규 김창숙 김경옥 김점숙 김연옥
구영옥 서순조 오혜경 한미희 윤미식 한명희 안은국
최민영 김성미 신광수 양전순 김지열 원경화 이광숙
김정례 박금례 배경애 황나윤 퀴태선 정순호 선순자
김미희 김은정 김미숙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⑥

분별없는 개발정책 '경주大法亂' 불보듯

노은영 구성립 이창성 전상호 김진우 강경도 서은정
유다종 이신형 백은영 정원선 김대경 이수미 권동윤
다원근 안순신 이목연 김인경 남상현 김은경 최 승
안태현 최경숙 김정식 강수미 한은아 박수진 송봉례
민수선 김영숙 양일희 이정환 안규용 고광호 홍수화
임용관 김상민 정선희 조미라 고현정 주홍민 김성희
안현숙 박주희 김은애 김지선 김은신 이정철 김지민
김재현 이 현 조오현 구수연 한은주 이광순 이옥란
박옥영 김도욱 구경희 김현미 정숙희 이필수 이형원
정두 김인경 조정희 박형준 박유정 임철한 박미향
혜영 채미진 이형석 조용섭 윤미란 이현미 변재숙
경세은 임정은 이경미 김인철 조은경 백현덕 김순례
김수현 백현영 오선아 노혜정 지준식 서은희 이필아
김현주 이남주 이화정 임승희 이세란 서수진 소현정
박선경 김미영 김오석 양일희 이유미 윤은경 최선화
박선영 최은용 서만식 임복진 전 훈 문수진 정주경
류은영 김광민 여은주 채주성 최근화 김성준 문준현
김병민 김형도 명 희 김두진 최경진 박설진 박금숙
김석하 김형선 이복숙 엄명심 정인재 박지혜 신진호
고방희 김정미 천혜영 박종근 최근화 오연정 한동철
문영주 최이순 박준영 나창숙 최선희 김정구 공병현
안희옥 유은미 박상미 정점남 임형선 김준희 최향정
이윤희 이정옥 이경희 최정희 한연희 안광희 최수미
박은희 이지연 문인선 김준옥 이현주 오정희 조면희
조선미 강정숙 이지숙 박혜경 윤경자 문지희 최진화
열시석 김기성 정병철 서지원 박상표 홍미숙 최재숙
박지현 이유미 김태환 황준옥 김승수 최인관 이유미
전경화 강인경 임주택 정지홍 민정길 김재현 안종아
이진기 장국안 이우경 김정임 정미영 정영혜 김창수
김은수 도태일 김관영 김은정 김유진 유선희 전은영
이명재 은우조 김상복 정재선 이보영 박인숙 정현기
조우현 문대식 오병권 양수호 양영식 박성훈 김형곤
웃혜원 장병희 김경희 주민기 김송민 손유선 연규용
이규성 조태형 길윤호 윤명한 최옥묵 강석환 연분필
연 숙 채수옥 이종구 정우철 박명순 조철만 함동규
신옥철 배단숙 심인환 김기용 한복한 손태영 홍번신
백경희 이윤미 김진영 최은옥 박준영 구지연 연진경
박애환 김정애 강정아 하태숙 이현주 이다정 허윤림
이명숙 이희정 최지영 최인숙 라미영 정희정 박현희
강선화 이지영 강수현 박애진 송정아 유혜진 김은정
최남정 조준상 류은숙 김현미 변윤희 이현숙 정윤희
정은경 정은경 이재화 임현정 이재숙 이참화 전미정
김효영 박소연 김민희 이정미 이은정 신문희 김경하
윤선영

삼보회 김수미 김보경 김종식 박승현 강형림
허재형 강성미 조재진 조재현 조재경
공필수 김경언 이옥덕 김은희 김지영 김신애
최영순 홍경희 조인영 이은영 김병화 안상훈 이정미
구미애 유재명 김성순 이찬준 이순자 이규순 심옥란
정영자 신호순 조재일 전영희 안원찬 이경숙 송필호
이귀례 한혜숙 김정숙 오창수 이성남 박인규 왕금수
양정심 박종금 김현일 김원자 신정숙

광주능인회 백천도 허춘경 곽성부 김정수
김 훈 나상일 임문준 김상봉
정남호 강인용 류경석 박현규 김윤기 서양숙 심동현
안용환 문영석 장봉기 김정덕 오강수 김민숙 나희준
이명옥 신은경 안수정 박희영 박만자 김영례 유성희
김선미 최정팔 김경택 서봉승 김희희 임일보 문재근
김진옥 한금애 양한근 이인숙 장선미 박성용 정소영
김수정 박천도 김준혁 조경원 최선미 이화우 박혜자
김영민 박남근 김종원 박기홍 김윤기 김영희 홍경자
박지혜

종단·단체 '개혁 틀 잡기' 부심

기자 방담…한해를 돌아보며

취재1부 이경숙 차장, 이준엽 차장, 한명우 기자, 김중근 기자, 이은자 기자
취재2부 임연태 차장, 정성운 기자, 김원우 기자
조사자료부 김재경 기자, 도필선 기자, 오종욱 기자, 고영배 기자, 남수미 기자
대구주재 이윤호 기자
부산주재 박병근 기자

—교계는 유감스럽게도 송광사 국사전 16국사 진영중 13국사 진영이 도난당하는 불운으로 1995년 문을 열고 불국사·석굴암, 해인사·팔만대장경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쾌거로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1월27일 발생한 송광사 성보도난은 아직 범인은 커녕 성보의 행방조차 묘연합니다. 이 사건은 불자들에게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불교문화재 관리 보존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성보도난건수는 총 24건(조계종)으로 회수는 거의 없고 지난 국정감사때는 국보의 10%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80%가 불교문화재인 만큼 불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련서적 늘어

—올해는 자료적 가치가 있는 책과 문화재 관련 책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한국과의 만남〉 등이 그것으로 일본 문화재 그리고 일본 고대문화는 한국인에 의해 조성됐다는 것을 일본자료 등 현지조사로써 밝혔습니다. 또한 〈절 짓는 사람〉〈돌부처〉 등이 출간돼 작년에 이어 문화재 관련도서 출판성향을 이었습니다.

해를 빛내기 위한 기획전이기보다 사찰불사기금마련 불우이웃돕기 자선전 등 개개행사에 '미술의 해'라는 명칭을 끌어들인 거라 작품의 내용이나 행사 프로그램에 '미술의 해'를 빛내주는 의미가 전혀 안 드러났지요.

〈대 고려국보전〉〈세계불교문화전〉 등에 수십만 인파가 몰려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세계불교문화전〉은 내년까지 연장 전시하기로 했지요.

—조계종에서 주최한 미술의 해 기획전은 불교미술계가 오랫동안 안고있던 전통 미술가와 창작 미술가간의 갭을 극명하게 보여준 전시회입니다. 창작 미술하는 사람은 거의 참여안해 종단에서 이러한 전시회를 그간의 갈등을 풀어 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문학계는 여전히 구도소설류가 주점입니다. 방북문제는 총무원뿐 아니라 재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정부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내년에도 시국사건 총선 등이 있어 방북허가가 어렵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실천승가회가 보광사로 이전하며 자체정화기에 들어갔고 전국불교운동연합도 조직개편을 모색했습니다. 선우도량은 〈신문으로 본 한국근현대사〉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나름대로 내부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평불협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내부 역량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불사 회향 신도결집

—중앙승가대학 이전문제는 각종학교 인가라는 부분과 맞물려 있고 월주 총무원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내년 3월까지 이전해야 하지만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1년이 연기됐습니다. 종단과 학교의 합리적 의견조율과 이전기금의 확충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주목받은 곳이 바로 별원화된 포교원입니다. 21세기 포교청사진을 만들어 미래포교를 위한 초석을 다졌고 포교사고시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취약점으로 여겨온 청소년 포교활성화를 위해 내년을 '불교 청소년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등 청소년 포교를 위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입니다만 실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지난 6월 청정국토한마당 행사에 60여곳에 이르는 사찰·단체가 참여했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나 보여지고 대부분 캠페인 위주여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고·진각·대한 법화·법륜·총화종 총무원장들이 교체되는 등 각 종단들은 개혁의 발판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봅니다. 태고종은 종헌 종법을 개정하고 3부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진기 50년을 맞는 진각종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획단 구성과 위덕대학 개교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천태종은 광수사 정광사 삼광사등 대불사에 매진한 한해였습니다. 눈에 띄게 급성장한 종단으로 총지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교사 고시 첫 실시

—지난해 조계종 사태가 사회이슈화되면서 신심이 크게 떨어진 현상이 올해도 이어져 신도단체들의 활동이 미약, 신행의 침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이라도 하듯 윤팔월 불사가 풍성했고 전국적으로 오래 끌어 온 대형불사가 회향하여 신도들을 결집시키기도 했지요. 지난 2월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국불교 재가회의'를 출범시켰으나 활동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여성불자들을 주축으로 각종 사고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유난히 돋보였던 한해로, 자원봉사센터 개원등 봉사의 전문화 체계화가 확산되고 청소년 봉사활동이 성적에 반영되는 등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된 한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불교관련 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첨단정보시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개가 넘는 단체나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인권 자비 정의 생활불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이트를 정리해 받아올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어 아쉽지요. 따라서 우리 불교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는데 다행히 '부다피아' '해인사 장경연구소' 등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려의 도성출입금지가 풀린지 1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50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종단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 하나없이 무관심하게 넘어간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불교TV 3월 개국 '안방 부처님 시대' 열어

'미술의 해' 외화내빈…불서출판 불황가속



◇1995년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해였다. 이를 거울로 삼아 내년은 좀더 희망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모두 기원하고 있다.

올해 불교출판계의 성과라면 출판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사전의 편찬입니다. 〈선학사전〉이 나왔고 내년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대사전〉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협약에 따라 저작권법이 제정돼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 저작가들의 저작권도 사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20세기에 나온 작가들의 저작물은 대부분이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일본불서를 많이 번역하고 있는 불교계의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 내년엔 학술서적 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올 한해 학술계는 교학중심보다 신행·계율·사찰경제·승가교육·환경 등 실제 생활에서의 응용분야와 각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학술단체가 불교를 다루는 세미나가 많았고 사찰에서 불사회향 기념 세미나도 많이 열려 사찰행사에서 학술행사가 주요 부분으로 자리잡은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발표자의 겹치기 출연에 무성의한 논문내용, 토론이 활발치 못하고, 청중이 적어 민망한, 예전의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세계불교문화전' 연장

—올해가 '미술의 해'로 지정됨에 따라 불교계도 불교미술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그 결과를 보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광주 비엔날레가 열려 일부 작가들이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것도 개인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불교라는 그런 수준이라 유감스러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자미술인들의 개인전 그룹전이 활발했으나 미술의 목받았죠. 작년처럼 초 베스트셀러는 나오지 못했고 하반기에 윤회사상이 뒷받침한 양귀자씨의 〈천년의 사랑〉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이 91년부터 추진해 온 새찬불가 1백곡을 마무리 해 큰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급하고 홍보해 널리 대중화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방북 정부불허로 무산

—올해 시민 운동단체는 크게 세가지로 특색이 두드러집니다. 첫째는 지난 6월 한국퉁신 사태때 총무원과 재야세력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또 하나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재야단체 스스로가 현실에서 자체에 대한 뼈저린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부다피아' '장경연구소' 등 불교정보 전산화

재가회의 출범·봉사센터 개원등 신행강화

불기 2540년(丙子年)
신년 축하 광고 안내

다사다난 했던 을해년을 보내면서 새삼 삼보의 가르침에 두손모아 공경을 표합니다.

본지는 불기 2540년(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법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 하는 광고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한해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신년축하광고
■규격 및 단가
1) 종단 : 가로 9cm×세로 17cm 기준, 25만원
2) 본사 : 가로 8.5cm×세로 6cm 기준, 15만원
3) 말사 : 가로 7cm×세로 4cm 기준, 5만원
4) 불교관련업체 : 위 규격기준, 선택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광고국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02) 737-8881 / FAX (02) 737-0697



◇첨단 영상포교매체인 불교TV가 3월1일 개국돼 불자들의 신행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사진은 불교TV 개국 리셉션 모습.



◇한 중 일 3개국 불교지도자 1천여명은 북경에서 만나 친선과 교류, 공동 사업추진 등을 합의했다. 사진은 월주 총무원장,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 나까무라 전일본불교회장의 모습.



◇천태종은 종단의 발원지인 중국 국청사에 '천태종 조사기념당'을 건립하여 한중 불교교류를 한층 두텁게 했다.

본지선정 을해년 교계 7대뉴스

불교TV 개국·BBS 지방국 확대

3월1일의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은 교계에 본격 영상포교시대를 열어 주었다. 또한 2월1일 불교부산방송과 3월1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 청주 대구지역 불교방송 설립허가 등으로 교계는 첨단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포교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전파매체를 통해 불법을 대하는 불자들의 신행도 급격히 변화를 맞으며,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불교TV는 세번째 주식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교방송 또한 인력수급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 중 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북방불교의 주역들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불교지도자들이 친선과 교류, 3국불교발전,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는 한중 한일 또는 중일 등으로 관계를 맺어왔지만 지난 5월 22~23일 중국 북경에는 3국 대표단과 참관단등 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을 펼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와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북경선언을 채택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불교붐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제1차 불교우호교류회의에 이어 2차 교류회의가 내년 9월9일 서울에서, 3차회의는 97년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광사 16국사진영 도난

1월27일 밤 송광사 16국사진영중 13국사의 도난은 성보문화재의 보존 관리의 허점을 또 한번 드러냈다.

송광사 성보를 찾기 위해 종단과 경찰문화재관리국은 각각 최고의 현상금을 걸며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범인은 커녕 성보의 행방조차 묘연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 사건은 불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불교문화재 관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종단에서는 새해 예산에 성보실태 조사예산을 책정, 지금까지 방치되 왔던 성보문화재의 정확한 파악에 들어가며 정부도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등 80억원으로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한 계기가 됐다.

불교자원 봉사단 발족

올해 최대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은 자원봉사의 절실함을 일깨우는 현장이 됐다. 실종자 발굴작업등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제공 구호등 자원봉사에 나섰고 여기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불련 등 단체와 구룡사 능인선원 등 사찰의 많은 불자들도 동참했다.

삼풍백화점 사고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자원봉사관리자 양성교육이 실시됐고 이들을 주축으로 불교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조계종 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교계 최초로 복지의 전반적인 자료·현황을 알 수 있는 불교사회복지 총람도 발간됐다.

한국불교 지구촌 포교 활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천태종 조사 기념당'을 건립 지난 6월 17일 낙성법요식을 거행했다. 국청사는 중국의 4대명찰의 하나로 천태종의 발원지. 기념당안에는 천태 지자대사 고려 의천 대각국사, 천태종 중흥조 상월 원각대사 청동좌상이 봉안돼 한중불교교류에 새장을 열었다.

이뿐 아니라 지난 6일에는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 대성 석가사가 기공됐고, 보드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라 등 인도 4대성지에 한국사찰이 건립됐거나 건립중에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를 세계속에 전파시키기 위해 국제포교사를 선발 해외전법에 나서게 하는 등 세계화를 향한 한국불교의 의지가 한층 커지고 있다.

고속철 경주 통과 반대 확산

한국불교 최고의 성지, 천년고도 경주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막자는 운동이 불처럼 번지고 있다. 불국사 석굴암으로 이제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된 경주에 정부가 고속철도 관통을 관철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저지하느라 불교계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경주노선 백지화를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교계뿐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문화재 관련단체들의 동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유물 유적을 마구 파괴하던 개발시대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문화재 보전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도 새로워지고 있다.

소쩍새 마을 사건 충격

지난 7월 MBC-PD수첩에 방영된 '소쩍새 마을' 사건은 불교계 복지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력'이 가짜 승려라 했지만 많은 불자들이 배신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력사건으로 인해 소쩍새 마을은 물론 여타 복지시설들도 후원자가 줄어드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사이비 승려 일소에 대한 여론이 비등,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위장하에 개인 축재에 몰두하는 일부 문제있는 시설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잇따랐다. 한편 소쩍새 마을을 인수받는 과정에서의 중앙승가대학 교수와 스님의 비리가 밝혀져 중앙승가대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송광사 성보도난 | BBS사장 공석 | 불교관계법 개정

해넘기는 교계현안 '수두룩'

유난히도 사건, 사고로 얼룩진 을해년이 꼬리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산적해 놓은채 해를 넘기게 됐다.

금년 불교계의 가장 큰 사건은 송광사 국사진영(보물 제1043호) 도난을 들 수 있다. 지난 1월 일어난 성보 도난사건은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초기 수사진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총 2천5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나 수사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불교계는 포스터 3천부를 배포하고 성보찾기 1백일기도를 벌였으나 아직 국사진영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불자와 국민들에게 사건자체마저도 잊혀지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한다.

불교방송 사장공석 9개월. 소위 2·24사태로 불려지는 불교방송문제는 두달후 당시 김태호사장의 사퇴로 확산됐다. 이후 방송국 내부문제, 조계종과의 불협화음으로 진통이 가중되어 온 불교방송은 조계종과 진흥원이라는 두 거물 사이에 끼어 사장 공석상태까지 파급,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불교방송의 사장공석은 지방국허가등 총력을 기울여야할 사안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해를 묵어온 불교관계 법령 개정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그동안 불교계에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사찰보존법 및 그 시행령 △도시계획법 및 그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등. 다행히 금년에는 종토세 면제등 지방세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룩했으나 아직 불교관계 악법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지방 승가대 개편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교육의 발전과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전국 15개 지방승가대를 사미(니) 각각 5~6개 정도로 개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방승가대(강원)의 강력 반발로 추진이 멈칫거렸으나 최근 지방승가대 설치령을 마련하고 군소승가대는 학림으로 유도하는등 내년에는 이를 꼭 실현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가을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교부가 경주도심으로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노선을 채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즉각 불교계와 문화재관계자 등이 반대입장을 밝혔고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제3안을 내놓았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재에도 정부는 고속철 경주통과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해인사국립공원내에 골프장 허가가 나와 불교계와 지역주민이 골프장건설을 저지하고 있으나 불씨를 남겨놓은채 새해를 맞게됐다.

또한 전국신도회가 2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계종이 중앙신도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해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과 관련해 불자들은 "현안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새해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엽 기자

"남먼저 생각하는 세상 가꾸자"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만류중생에게 불보살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기억속에서 지우고픈 황망한 일이 유난히 많았던 을해년.

우리는 역사를 긴 안목으로 바로 보는 지혜로써 보편적 가치를 창출함에 동참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은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미망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질곡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에겐 자비의 손길로 다가가 치료하며, 서로의 가슴속에 깊숙히 자리한 아집과 편견, 독선과 배타는 참회의 전제아래 관용과 화합으로 감싸 안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보를 양보하는 미덕으로 나의 복됨보다는 남의 불행한 바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세상, 살만한 세상을 가꾸어 나감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칼 끝의 꿀을 핥는 가련한 중생들아

무덤 밖에 손을 내민 그 까닭을 모르는가?

천하를 희롱하듯 평생을 살아봐도

마침내 풀끝이슬 뉘라서 면할손가!

분명코 분명토다.

동체대비 가르침 대사회 실천
'한마음법등 나눠주기' 캠페인

'불교복지 대상자 3천명을 돕는 한마음 법등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본사는 지난 17일 안양 한마음선원 대법회장에서 법등 나눠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1천5백여 불자가 동참, 동체대비의 가르침 실천을 통한 불교사회복지의 진일보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했다.

한마음 법등에 모아지는 성금은 가까운 은행지로(7621929)나, 조계종 복지재단(02-723-5101), 현대불교신문사(02-722-4162)에 반납하면 되며, 이 기금은 불교사회복지시설·단체의 이용자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신임 문체부장관
김영수씨

지난 20일 개각으로 신임 문화체육부장관에 김영수씨(53)가 임명됐다.

김장관은 서울대 법대 졸업후 사법고시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2부장, 안기부 제1차장, 14대의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냈으며 청소년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사단법인 새출발
이사장에 법장스님…장기기증등 활동 확대

지난 94년 임의단체로 설립돼 장기기증운동을 펼쳐왔던 생명공양운동실천본부가 마침내 정식 법인단체로 발족했다.

지난 10월 법인설립에 따른 발기인 총회를 가졌던 생명공양운동실천본부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나눔실천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생명나눔실천회'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초대 이사장에, 태응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등 12명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21일 장기기증 및 헌혈운동, 골수기증운동,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등 내년도 목적사업과 기금마련 특별행사, 회원 수련대회등 기타사업을 확정했다.

"제재풀려야 대화"
선학원 분원장 간담회

조계종 법인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우)가 주관한 선학원 분원장 초청간담회가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40명의 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에서 "몇몇 선학원 이사들이 선학원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종지 종통과 사상이 같은 선학원은 조계종 산하로 들어와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분원장들은 조계종헌 9조3항으로 제재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조계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기에 제재조치부터 풀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우스님은 "선학원을 창설했던 근본이념을 저버리는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선학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여론 확산
세계유산 인증계기…경실련·흥사단등 참여

불국사 석굴암등 3건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반대 움직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경불련(공동의장 설조·안동일)은 지난 8일 평불협등 교계 11개 단체와 경실련등 한국시민단체협의회 37개 단체의 동조를 얻어 고속철의 도심통과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시점에서 경주의 문화유적보존은 당연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의 도심통과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그동안 주로 불교계에서만 나오던 반대 목소리에 경실련, 흥사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등 일반시민단체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일신문사와 경북산업대 부설 도시환경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경주시민 2천2백74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경주통과를 찬성한 반면 도심통과노선에 대해서는 18%만이 찬성해 기존노선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73%는 건천우회노선을 기본으로 한 문화재보호 역세권 및 신도시개발, 환경피해 최소화, 비용절감 등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찬성하겠다고 답했으며, 81%가 새로 건설될 신도시의 지하로 고속전철이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지난 9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추진위원 및 가입단체장 연석회의를 갖고 10월부터 시작된 백지화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운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연말내로 5백여명의 문화·학계 인사를 추진위원으로 선임, 결의문을 작성·발표하고, 새해 초에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 촉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1백47명 오계수지
부산불교중학생련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총재 보해)는 지난 16일 법륜사에서 제11회 수계 및 합동수료식을 거행했다.

거향찬, 청성, 청사, 연비의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에서는 보해스님을 계사로 1백47명(남 20명, 여 1백27명)의 청소년 불자동량이 탄생됐다. 한편 합동수료식에서는 중학 3년간 모범적인 불자청소년으로서 생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지기도 했다.

마야유치원 19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임휴사 부설 마야유치원(원장 혜담)은 지난 19일 유치원 법당에서 유치원 개원 현판식 및 부처님 봉불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명스님(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 회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네팔 불자모임
1월14일 창립
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운영위원장 김동흔)은 네팔 근로자의 불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총무원 법당에서 '네팔불자모임' 창립법회를 갖는다.

외국인노동자 마을은 '네팔불자모임'을 통해 네팔인들에게 한국불교와 문화는 물론 불교교리를 통한 한글 학습등 한국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네팔과의 불교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네팔불자모임'은 외국인노동자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90여명의 네팔인이 한국불자들과의 교류 및 네팔의 발전을 모색키 위해 제안함으로써 이뤄졌다.

불국사·해인사·조계사서 축하법회

세계유산 등록 "축제 분위기"

경(印經)시연과 정대불사 재현, 팔만대장경 주위 관람, 탑돌이 등이 펼쳐졌다. 보경당에서 열린 경축법요식은 해인사 방장 혜암스님, 주지 지관스님, 김혁균 경남도지사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혜암스님은 "해인사 장경판각이 세계문화재로 등록되니 대적광전 부처님이 큰 빛을 발하고 팔만대장경이 말없이 법을 설한다"고 자축했다.

〈합천=박병근 기자〉

이날 경주 불국사는 석굴암에서 월산 불국사 조실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지정을 알리는 고불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불국사 대웅전에서 축하기념법회를 가졌다.

〈경주=이윤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도 같은날 조계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태고종총무원장 혜초스님·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진각종통리원장 락혜스님·관음종총무원장 홍파스님·불교TV사장 태응스님·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월주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조상들의 비원이 서려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선현들의 경건한 삶을 느끼고 배와 자연, 세계가 하나 되는 축리셉션을 갖고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선포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등 3건에 대해 등록인정서를 전달키 위해 내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 베른트 폰 드로스트씨(인터뷰 7면)도 해인사 불국사 행사에 참석했다.

金대통령 축전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9일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과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그리고 종묘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이범준이사장에게 각각 화환과 전문을 보내 축하했다.

김대통령은 축전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들일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9일 조계사에서 불교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 불자교사모임 창립

불교학생회의 활성화와 불자교사들의 신심고취를 목적으로 한 광주·전남 교사불자모임이 창립됐다.

광주·전남지역 불자교사 50여명은 지난 15일 금륜회관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학생회 활성화, 정기법회 및 수련회를 통해 올바른 청소년 교육은 물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진택 교사(전남여상고)는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하고 "이 지역 각급 학교의 불교학생회 지도·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0·27법난 상무대비리 진상규명 촉구
실천승가회, 검찰에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청화·지선)가 10·27법난 특별법 제정과 상무대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검찰방문 직전 조계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27법난과 상무대 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불교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시 검찰고발 조치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화, 지선, 효림스님등 실천승가회 스님 6명은 지난 20일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방문, 검찰 관계자들에게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상무대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독신청: 737-0693

조계종 지방승가대 개편 가시화
운영규정 심의…교수 5인·학인 60인 이상 인가

조계종 지방승가대학(강원)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승가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했다.

설립과 인가, 설치기준, 교수, 운영, 학사운영, 벌칙 등 승가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해 놓고있는 이 안에 따르면 종단 또는 사찰이 설립한 승가대는 반드시 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승가대는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수료자도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자로 인정 못받는다. 학인정원은 총 6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학장(강주) 학감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교수를 두어야 하며 교수는 1년에 한번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각 승가대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학장(강주)은 당해 승가대학의 학기별 학사일정, 개설과목, 학인수 등을 매학기 개강후 15일 이내 교육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칙에서는 이 규정이 공포되고부터 각 승가대는 6개월 이내 이 규정이 정한 요건과 기준에 맞춰 종단에 등록토록 했다.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이 규정은 교육원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문 강사교육기관 설립 재검토

조계종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3차 교육위원회의를 갖고 지방승가대학 설립규정안이 마련되는대로 그에 따른 지방승가대 설립인가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한 강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있는 지방승가대학의 명칭 변경은 충분히 연구 논의후 공론화한 뒤 변경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방승가대학은 우선 인가하고 신설학림문제는 시설, 교수, 학인 등을 면밀히 검토후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미(니) 비구(니)의 복장 차별화를 조속한 시일내 실현시킨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10시 열린 교육원회의는 전문강사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행자교수사 연구비 지급, 지방승가대 우수학인 포상 등을 결의했다. 〈본지 58호 1면 참조〉

31일 송년예술제
조계사 중·고학생회

조계사 중·고등학생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95 송년예술제'를 개최한다.

'환경오염'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예술제는 학생회의 각 부서별 발표와 직접 폐유로 만든 무공해 비누 가두배포와 함께 대동놀이가 펼쳐진다.

"재생불량 빈혈 정우식군에 자비를"

피를 스스로 생산치 못하는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우식군(12세)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정군은 지난 4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마지막 세포이식수술을 앞두고 있으나 수술경비 1천여만원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정군의 아버지는 4년전에 돌아가시고 정군은 현재 할머니와 5명의 누나와 함께 살고있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우식군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 정군을 보호하고 있는 이종수씨(02-504-5054)에게 연락하면 된다.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2부 기자〉

3개매체 협력안 '술렁'

'겉으로는 협력을 내세웠지만 추후 통합을 위한 사전포석이다' '불교발전과 매체포교의 새로운 원동력 구축이다'

지난 15일 불교방송·불교TV·불교신문 3개매체 대표들이 상호협력과 관련 합의사항을 전격 발표하자 교계는 이와같은 양분된 시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3개매체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불교언론의 연대감 고취와 전문인력의 활용, 예산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직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곳은 의외로 해당매체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평가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특히 불교방송 보도국은 협력에 관한 합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통합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6일 오전 8시 'BBS 뉴스광장'을 통해서는 '5공 언론통합과 유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각계의 우려 목소리까지 내보냈을 정도다. 편성부 PD들도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불교방송은 결국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은뒤 지난 19일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해 3개매체간 인적교류확대등 4개항의 구체적인 합의부분은 '협력할 수 없다'고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불교TV 여론도 법률적으로나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협력관계이지 운영상 협력이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리공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점심식사하며 얘기하자는 정휴스님 제의에 아무 생각없이 참석한 것 뿐'이라고 밝혀 3사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충분한 합의없이 발표됐음을 노출, 자칫 해프닝으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바람소리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몹시 춥다는데 화심마을의 겨울준비는 단단히 하셨습니까? 여기 아파트는 꽉 따뜻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는 선원에 새로 조성한 부처님 세분의 점안 법회가 있었습니다. 넓은 법당과 복도까지 가득한 사람들이 한 삼천명은 넘어 보였는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진언하는 소리로 법당은 법음이 충만한 범종 속 같아서 천정에 울림통 같은 작은 구멍통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진동수에 따라 마음이 울리며 형언 할 수 없이 성스러운 빛을 타고 저는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황홀감에 젖었습니다.

이웃에 베푸는 따뜻함 영혼을 순수케 하는 빛

추선 채 하늘에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에 비해 천장이 낮아 보이는 지하 법당에서, 횃마루나 기와집 안에 사람 형상이 있는 저의 그림을 보시고 "부처님이 답답하시겠다"하시던 보살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벚꽃 속이나 들 물꽃 사이에 계시는 그림을 그리면 부처님이 시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처님 생각하시는 자상하신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과 집이라는 편견과 틀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 속에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마루에 앉으면 부지런한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풍경소리,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 울림에 공명한 어떤 성스러운 분이 부명한 빛살로 내려와 마음을 비춥니다.

도시의 소음과 쇠붙이의 굉음에도 부딪치고 부서지며 반짝이는 빛이 내립니다. 그 빛은 영혼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바라나시의 강물처럼.

그림을 통해 저는 이렇게 꿈꾸고 희망하며 세상의 모든 분들이 그 빛에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빛과 소리가 있고 그 원함을 따라가면 마음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살님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림도 그리겠지요.

보살님, 노스님은 어느 산골에서 겨울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을부터 뵙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훽 돌아서 떠나시는 모습은 너무도 냉랭하고 섭섭하지만 미혹한 중생이 인정머리에 묶이지 않고 매 순간마다 충실히 살아가도록 깨우침을 주시는가 봅니다.

만나면 언제나 밥을 사주시는 보살님께서도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살님, 건강의 비결 하나는 많이 걷고 또 신맛나는 음식이나 과일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차 조금만 타시고 많이 걸으세요. 신것도 드시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 화심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기 2539년 설달 하순에

하 수 경 합장

인연 ⑧

주부신행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마음은 바쁘고 손이 두 개가 아니라 한 대여섯개쯤 있었으면 하고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또 속상한 일이 적지 않지만 그저 참을 '인(忍)'자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렇게 꾹꾹 눌러가며 살다 터져버릴 때가 있다. 대부분 남편이 화풀이 대상이 된다.

남편은 내가 극도로 화를 내면 "아이고 보살님, 잘못했습니다"하면서 절을 한다. 절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 화가 사르르 녹아버린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10년이다.

부부들이 한 집에서 살다보면 사실 싸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나는 부부들에게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합장하고 절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당신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공손히 절을 하는 남편(또는 아내)에게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내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말인가.

신혼 초 전세로 살다가 토지 분양을 받게 되었다. 분양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절절매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융자를 받아 해결했고 2년전에는 3층 집까지 지었다. 지금은 빚도 거의 다 갚아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것은 모두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불심 덕분이 아닌가 한다. 시할머님의 손주(남편)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손주의 와이셔츠와 양말은 늘 당신이 손수 빨래를 하신다. 직장 생활로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도와 주신다고 시어머님은 밤낮으로 살림을 봐겨 주신다.

화장보다는 자기 나이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을 헤아려 주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이 분들의 지극한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큰 우환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드린다. 98세의 시할머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찡하고 든든하기 그지없다.

누군가 40이 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난 지금도 화장을 안한 맨 얼굴로 다닌다. 못도 가능한 검소하게 입고, 한푼 두푼 아낀다. 40이 넘은 여자는 어느 정도 치장을 하는 것이 예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얼굴 매만질 시간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 화려하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나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내 얼굴에 나타나 있길 바란다. 가끔 길에서 화려한 화장과 치장을 한 부인들을 만난다. 늙은 모습을 감추느라 진하게 화장을 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해서 늙어가는 모습을 감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자기 나이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자기 위주보다 남을 생각해 주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사람에게서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볼일보러 서울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했다. 배웅하는 뒷모습에 '부처님, 남편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보살펴 주세요' 기원드렸다. 이렇게 평범한 주부로, 특출나지도 못한 내가 별로 알릴 것도 없는데 주부 신행담란에 쓰게 되어서 그저 부끄럽다.

다만 앞으로 시할머님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내조 잘하고 아들 동엽이 잘 키우겠다는 각오를 다시한번 부처님께 서원드린다.

허 위 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㉑

♦ One who is an accomplished great ls, whose passions are destroyed and whose misbehaviour has ceased, thou shouldst serve with other food and drink, for this is the field for one who looks for good works.

완전한 사람인 큰 선인(大仙人),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주어라.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의 복밭이 될 것이다.

♦ To whom then, O gotama, shall I give this rice-milk? so said Kasibharadvaga.

I do not see, O Brahmana, in the world (of men) and gods and Maras and Brahmans, amongst beings comprising gods and men, and Samanas and Brahmanas, any by whom this rice-milk when eaten can be properly digested with the exception of Tathagata, or a disciple of Tathagata. Therefore,

O Brahmana, thou shalt throw this rice-milk in(a place where there is) little grass, or cast it into water with no worms, so' said Bhagavat.

"그러면 고타마여,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바라드바자가 말했다.

"바라문이여, 신, 악마, 범천(梵天)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 완전한 사람(如來)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우유죽은 산 풀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려라"스승이 답했다.

*la 주인, 통치자, 소유자.
*misbehaviour 부정한 행위.
*Brahmana 바라문(婆羅門).
*Tathagata 여래, 참사람(如來如去)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 속의 불교 ㊺

기린은 목이 길고 사자는 용맹스럽지만…



원(圓)에는 모서리가 없다. 아니, 모서리가 많아서 오히려 모서리가 없어진 게 원이다. 세모꼴엔 모서리가 세 개 있다. 네모엔 네 개, 다섯모엔 다섯 개….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꼴은 점점 원에 가까와지고 무한대에 이르면 마침내 모서리 없는 원이 된다. 그래서 원은 원융(圓融)이다.

입체꼴 가운데 모서리가 없는 게 구(球)이다. 사면체, 육면체로 늘어나다 보면 점점 공 모양이 되고 나중에는 모서리도 꼭지점도 없는 둥근 공이 된다. 그래서 공은 걸리는 자리가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碍)이다.

기린은 동물 중에 목이 가장 길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 코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표범이나 치타는 달리기에서 으뜸 간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 용맹 때문에 백수의 왕이 된다. 그렇듯이 모든 동물은 그 나름대로 생존에 필요한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이고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각자 살아 남기 위해 신체적 장점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에 비하면 인간은 어떤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생존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에서 가히 만물의 영장이다. 달리기에선 표범만 못하고 용맹성에선 사자에 뒤지고 냄새 맡기로서는 개보다 둔하지만 모든 특징을 고루 다 갖춤으로써 오히려 특징이 돋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꼴에 비유하자면 원이나 공에 해당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거의 종점에 다다른 듯 싶다. 현대과학문명을 일구어낸 그 눈부신 창의력을 볼 때 진화의 극한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종점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아니, 종점에 당도한 인간은 그야말로 극소수라고 하는 편이 옳다. 왜냐? 완성꼴인 원 또는 구의 경지—원융무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손꼽을 만큼 소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야말로 완성형이다. 불성론에 근거하면 완성 아닌 완성이라 해야 맞겠지만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은 분명 인간 진화의 마지막 꼴이 된다. 모서리가 전혀 없는 원융무애 그 자체로서 모든 중생이 닮내는 갖아져야 할 사표(師表) 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처님을 닮으려 하기보다는 제 잘난 맛에 더 심취하고 있다. 종점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만 진화의 걸음을 멈추고 '내로다' 하면서 아상·아만에 취해 산다. 마치 목이 길다고 뽐내는 기린, 냄새를 잘 맡는다고 킁킁거리는 개와 닮은 꼴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여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둘 아닌 도리를 생활화하라고 역설하셨다. 그리고 몸소 원융무애를 실천해 보이셨다. 너희가 조만간 완성의 문턱을 넘어 곧 원융의 경지에 다다를 것이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뜻에서 보여 주셨다.

모서리가 있는 것은 잘 구르지 못한다. 부딪힘 없이, 걸림 없이 구를 수 있는 것은 모서리 없는 공뿐이다. 공이어야만 자유자재로 구른다. 그대로 해탈의 경지요, 무애의 경지인 것이다. 불법은 마음을 모나지 않게, 둥글게 쓰면서 살라고 가르친다.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게 마음공부이다. 세모꼴로, 네모꼴로 살지 않고 공처럼 사는 것—진화의 종점에 다가선 인간이면 누구나 부처님을 닮으려 해야 할 것이다. 불법은 늘 가까운 데 있다.

협찬 : 제주지원 법형제회